

칼 바르트의 과학 신학과 그 영향:

기독교론적 집중에서 우주적 만개로의 궤적과 현대 과학신학적 변용

신경수(Ph.D, 조직신학)

I. 서론

-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 B. 개념적 구도와 논문의 전개 방향

II. 제1기: 철저한 부정과 자연신학의 절대적 배경 (1920-1930년대)

- A. 역사적·정치적 배경: 우상숭배로 전락한 자유주의 신학
- B. 신학적·철학적 단절: 무한한 질적 차이의 선언
- C. 에밀 브루너와의 논쟁 (1934)

III. 제2기: 인식론적 전환과 학문(Wissenschaft)으로서의 신학 정립

- A. 대상의 고유성에 충실한 독자적 학문론
- B. 역설적 성취: 방법론적 청결주의(Methodological Hygiene)와 자연과학의 자율성 확보

IV. 제3기: 창조와 언약의 변증법, 그리고 물질세계의 존재론적 긍정

- A. 창조신학의 구조적 확장 (CD III, 1940년대)
- B. 현상학·실존주의적 인간학 비판: 칼 야스퍼스와 막스 셸러
- C. 제3기 후반: 섭리론과 생명윤리
 - 1) 기계론적 우주관과의 대결
 - 2) '빌려주신 생명'의 생명윤리
- D. 『하나님의 인간성』(1956)과 존재론적 경첩(Hinge)

V. 제4기: 기독교론적 우주론의 만개와 '빛들의 교리(Lichterlehre)' (1950년대)

- A. 『교회 교의학 IV/3.1』과 중보자의 영광
- B. 하향식(Top-Down) 자연의 신학과 세속의 비유

VI. 칼 바르트 과학신학의 계승과 현대적 대수렴

- A. 토머스 F. 토런스(T. F. Torrance): 인식론적 동형성과 우발적 합리성
- B. 크리스찬 링크(Christian Link): 창조신학과 비유의 해석학
- C. 정승훈: 동시대성의 신학(Theology of Contemporaneity)과 세계개방의 공공신학
- D. 알리스터 맥그래스(A. McGrath)와 현대 과학신학으로의 연결망
- E. 소결: '빌려주신 생명(Lehen)'과 '비유로서의 세계'의 실천적 대수렴

VII. 결론

- A. "아니오(Nein!)"에서 잉태된 "빛들의 교리"의 역설적 승리
- B. 포스트휴먼 시대와 우주과학 시대를 향한 신학적 나침반

국문초록 (Abstract in Korean)

칼 바르트의 과학신학과 그 영향: 기독교론적 집중에서 우주적 만개로의 궤적과 현대 과학 신학적 변용

본 연구는 칼 바르트(Karl Barth)의 신학적 궤적을 추적하며, 그가 주창한 '기독교론적 집중(Christological Concentration)'이 어떻게 현대 과학신학의 우주적 만개와 실천적 생명윤리로 이어졌는지를 규명한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문화 개신교주의)과 나치즘의 우상숭배에 맞서 바르트가 전개한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에 대한 철저한 거부와 자연과학에 대한 배척이 아니었다. 이는 하인리히 쉘츠(H. Scholz)와의 대화를 통해 신학을 고유한 대상에 충실한 독자적인 '학문(Wissenschaft)'으로 정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연과학을 목적론적 간섭에서 해방시켜 완벽한 방법론적 자율성을 보장한 위대한 인식론적 결단이었다.

중기의 창조론 및 섭리론(CD III/1-3)에서 바르트는 에른스트 헤켈(E. Haeckel)의 생물학적 환원주의와 칼 야스퍼스(K. Jaspers), 막스 셸러(M. Scheler)의 철학적 인간학을 철저히 타파하며, 자연과 이성만으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 동시에 라이프니츠(G. W. Leibniz)의 낭만적 기계론과 스피노자(B. Spinoza)의 결정론적 우주관을 해체함으로써 닫힌 시계태엽 우주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Living God)가 임하는 개방된 우주로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샤를로테 폰 키르쉬바움(C. von Kirschbaum)과 바이체커 가문(의학자 빅토르와 물리학자 칼 프리드리히)의 다학제적 통찰을 수용하여 획기적인 기독교론적·관계적 인간학과 개방적 우주론을 정립한다.

특히 생명윤리(CD III/4) 영역에서 바르트는 생명을 창조주가 철저한 주권 아래 '빌려주신 것(Lehen, Loan)'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알베르트 슈바이처(A. Schweitzer)의 범신론적 생기론을 극복하고, 인간의 생물학적 유용성을 잣대로 안락사를 옹호했던 칼 빈딩(K. Binding)과 알프레트 호헤(A. Hoche)의 우생학적 폭력에 교의학적 철퇴를 가하여 생명의 절대적 존엄을 수호했다.

나아가 후기의 『하나님의 인간성』과 화해론(CD IV/3.1)의 '빛들의 교리(Lichterlehre)'에 이르러, 바르트는 세속의 과학적 발견과 경이로운 우주적 질서들을 절대적 태양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세속의 비유(Säkulare Gleichnisse)'로 수용하는 하향식 '자연의 신학(Theology of Nature)'으로 도약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바르트의 인식론적 혁명과 생명윤리가 토머스 F. 토런스(T. F. Torrance)의 우발적 합리성(Contingent Rationality), 크리스찬 링크(C. Link)의 생태학적 비유 해석학, 그리고 정승훈의 동시대성의 신학을 통해 어떻게 전일적 과학신학(Holistic Scientific Theology)으로 계승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바르트의 기독교론적 우주론과 '차용된 생명'의 윤리가 생명을 기술로 개조하려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충동을 제어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에 무너진 생명과 생태계의 존엄을 회복하는 가장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존재론적 나침반임을 논증한다.

- **주제어:** 칼 바르트, 자연의 신학, 빛들의 교리, 방법론적 청결주의, 빌려주신 생명(Lehen), 우생학 비판, 섭리론, 토머스 F. 토런스, 포스트휴머니즘, 과학신학.

I. 서론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19세기 계몽주의의 낙관론과 칸트(I. Kant)의 선형적 철학에 뿌리를 둔 '문화 개신교주의(Kulturprotestantismus)'는 인간의 이성, 윤리적 진보, 그리고 서구 문명의 역사적 발전을 하나님의 계시가 실현되는 연속적 과정으로 간주했다.¹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아돌프 폰 하르낙(Adolf von Harnack)과 빌헬름 헤르만(Wilhelm Herrmann)을 비롯한 93명의 독일 최고 지성인들이 빌헬름 2세의 전쟁 정책을 지지하는 선언문에 서명한 사건은 이러한 인간 중심적 자연신학의 치명적인 파산을 알리는 역사적 신호탄이었다.² 칼 바르트(Karl Barth)는 인간의 문화와 애국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동일시한 이 비극적 사태를 뼈저리게 목도했다. 나아가 1930년대 '독일적 그리스도인(Deutsche Christen)'들이 게르만 민족의 혈통(Blood)과 영토(Soil)를 새로운 자연 계시로 포장하여 나치즘에 부역하는 우상숭배로 치달자, 바르트는 바르멘 신학선언(1934)을 통해 철저한 예언자적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³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바르트가 주창한 철저한 '기독론적 집중(Christological Concentration)'이 단순히 학자들 간의 사변적인 방법론 논쟁이나 교리적 폐쇄성이 아니라, 타락한 세속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신학의 영역을 침범하여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생존적이고 예언자적인 투쟁이었음을 재조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르트가 1934년 에밀 브루너(Emil Brunner)와의 논쟁에서 단호한 "아니오!(Nein!)"를 선언하고, 가톨릭 자연신학의 철학적 토대인 '존재의 유비(Analogia Entis)'를 적그리스도의 발명품으로 배격한 사실로 인해, 오랜 기간 그의 사상은 자연과학과 이성을 맹목적으로 배척한 폐쇄적인 신학이라는 피상적인 오해를 받아왔다.⁴ 그러나 바르트가 맹렬히 공격한 대상은 피조 세계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자연과학(Natural Science) 그 자체가 아니라, 유한한 피조 세계의 관찰이나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통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구원론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의 인식론적 교만이었다.⁵

오히려 바르트는 『안셀무스: 이성을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과 『교회 교의학(Kirchliche Dogmatik)』 서론을 통해 신학이 타 학문의 방법론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¹ Karl Barth, *Protestant Theology in the Nineteenth Century: Its Background and History*, trans. Brian Cozens and John Bowden (London: SCM Press, 1972), 350-355.

² Karl Barth, *The Humanity of God*, trans. John Newton Thomas and Thomas Wieser (Richmond: John Knox Press, 1960), 14-16. 이 부분은 바르트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전쟁 지지 선언문에서 받은 신학적 충격과 그 결별의 당위성을 서술하고 있다.

³ Arthur C. Cochrane, *The Church's Confession Under Hitle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237-242. 이 문헌은 바르멘 신학선언 제1조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그 신학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⁴ Karl Barth and Emil Brunner, *Natural Theology: Comprising "Nature and Grace" by Professor Dr. Emil Brunner and the Reply "No!" by Dr. Karl Barth*, trans. Peter Fraenkel (London: Geoffrey Bles, 1946), 71-75. 이는 접촉점과 자연 계시를 둘러싼 브루너와의 철저한 변증법적 단절을 선언하는 핵심 논변이다.

⁵ Thomas F. Torrance, *Karl Barth, Biblical and Evangelical Theologian* (Edinburgh: T&T Clark, 1990), 135-141.

'학문(Wissenschaft)'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천명했다.⁶ 특히 이 과정에서 수리논리학자 하인리히 솔츠(H. Scholz)와의 치열한 논쟁은 신학이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체계성과 방법론을 갖춘 과학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모든 참된 학문의 방법론은 그 연구 대상(Object)의 고유한 본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듯, 신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말씀)'라는 대상을 향해 '신앙의 유비(Analogia Fidei)'라는 고유한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바르트의 이러한 철저한 자연신학 거부가 역설적으로 현대 자연과학에 완벽한 '방법론적 자율성(Methodological Autonomy)'을 부여하는 위대한 신학적 결단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⁷ 또한 본 논문은 이 궤적 속에서 샤를로테 폰 키르쉬바움(C. von Kirschbaum)과 빅토르 폰 바이체커(V. von Weizsäcker)의 공헌이 바르트의 기독교론적 인간론을 현대 생물학 및 의학과 역동적으로 대화하게 만든 결정적 경첩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바르트가 취한 신학적 방법론의 독자성은 과거 '틈새의 하나님(God of the gaps)'을 찾으려던 왜곡된 변증을 신학 내부에서 원천적으로 폐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역설적으로 자연과학이 억지스러운 신학적 간섭에서 벗어나 온전한 탐구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획기적인 토대가 되었다.⁸

이러한 바르트의 인식론적 혁명은 토머스 F. 토런스(Thomas F. Torrance)와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 등으로 이어져 신학이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 우주론과 대등하고 당당하게 대화하는 '과학신학(Scientific Theology)'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존재론적 반석이 되었다.⁹ 따라서 본 논문은 초기 바르트의 엄격한 단절이 결코 배타주의에 머물지 않고, 후기의 방대한 창조론과 '빛들의 교리(Lichterlehre)'를 통해 온 우주를 기독교론적 렌즈로 넉넉히 품어내는 '자연의 신학(Theology of Nature)'으로 만개하는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함으로써, 포스트휴먼 시대를 마주한 오늘날 과학과 신학의 대수렴을 위한 현대 과학신학적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B. 개념적 구도와 논문의 전개 방향

본 논문은 칼 바르트(Karl Barth)의 신학적 여정을 해명함에 있어, 인간 중심적 추론에 기반한 '자연신학(Natural Theology)'과 철저히 기독교론적 토대 위에서 재구성된 '자연의 신학(Theology of Nature)'을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개념적 구도를 설정한다.¹⁰

⁶ Karl Barth, *Fides Quaerens Intellectum: Anselm's Proof of the Existence of God in the Context of His Theological Scheme*, trans. Ian W. Robertson (London: SCM Press, 1960), 25-28;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 part 1,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trans. G. W. Bromiley (Edinburgh: T&T Clark, 1975), 3-11. 이 책들은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지니는 독자성과 대상에 종속되는 방법론을 확립한 내용이다.

⁷ 정승훈, 『칼 바르트와 동시대성의 신학: 초기 자펜빌 문서와 『교회 교의학』의 연속성에서 본 사회비판과 타자애의 배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4-32, 414-420. 이 문헌은 자연신학의 배경이 자연과학의 방법론적 자율성을 보장한 역설적 결과를 동시대적 관점에서 해명한다.

⁸ Christian Link, *Schöpfung: Schöpfungstheologie angesichts der Herausforderungen des 20. Jahrhunderts* (Band 7/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1), 400-414, 455-462. 이 자료는 바르트의 창조론 안에서 현대 우주론과 생태학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자율적 탐구 영역으로 확보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⁹ Alister E. McGrath, *A Scientific Theology*, vol. 1, *Natur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142-150; Thomas F. Torrance, *Theologic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105-112. 이 서술은 바르트의 기독교론적 인식론이 현대 과학신학의 비판적 실재론과 형성하는 구조적 동형성을 논증한다.

¹⁰ Thomas F. Torrance, *Reality and Scientific Theology*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5), 38-42. 토런스는 여기서 바르트가 폐기한 자연신학과 그가 새롭게 정초한 과학신학 간의 질적 차이를 인식론적으로 명확히 규명한다.

전통적 자연신학은 인식론적으로 '아래에서 위로(Bottom-Up)'의 방향성을 지니며, 타락한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이성, 혹은 과학적 발견(아래)에서 출발하여 신의 존재와 속성(위)을 독립적으로 추론하려 시도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유한한 이성을 척도로 삼아 무한하신 하나님을 재단하는 펠라기우스적 교만을 낳았으며, '존재의 유비(Analogia Entis)'라는 철학적 토대 위에서 시대적 이데올로기를 신성화하는 이상숭배로 귀결되었다.¹¹

반면, 바르트가 후기에 만개시킨 '과학신학'은 철저히 '위에서 아래로(Top-Down)'의 하향식 방향성을 견지한다. 이는 자연에서 신을 도출하는 변증적 시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신 말씀,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고스)라는 절대적 빛을 먼저 수용할 때 비로소 성령의 조명을 통해 피조 세계에 흠뻑려진 '작은 빛들(Kleinere Lichter)'의 의미를 해독해 낼 수 있다는 그리스도 중심적 우주론이다.¹² 바르트의 이러한 전개는 창조 세계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칼뱅(J. Calvin)의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 개념이나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헤르만 바빙크(H. Bavinck)가 정립한 '일반 은총(Common Grace)' 교리와 외견상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 듯 보이나, 자연 자체를 독립적인 계시의 원천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앎을 철저히 기독교적 통제 아래 둔다는 점에서 전통적 개혁신학과도 구분되는 독창적인 인식론적 궤적을 그린다.¹³

이러한 명확한 개념적 구도 위에서, 본 논문은 바르트의 사상적 발전 궤적을 초기 사상의 폐기를 의미하는 '단절과 전향(Reversal)'이 아니라, 중심축(Solus Christus)을 확고히 고수한 채 우주로 지평을 넓혀 나간 '점진적 심화와 우주적 확장(Unfolding and Expansion)'의 관점에서 추적할 것이다.

1920-30년대 초기의 바르트가 브루너를 향해 던진 단호한 "아니오!(Nein!)"는 자연과학이나 우주의 물리적 실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계시의 객관성을 사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쌓아 올린 인식론적 성벽이었다. 이 중심이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해진 중기 이후,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Kirchliche Dogmatik)』 제3권 창조론을 통해 "창조는 언약의 외적 근거이며, 언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라는 위대한 명제를 수립한다.¹⁴ 이는 자연과학이 탐구하는 우주의 기원과 메커니즘을 신학적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그 물리적 무대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교제를 위해 정교하게 마련된 것임을 선포하는 평화로운 공존의 문법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바르트는 신학과 과학의 경계를 엄격히 긋는 '방법론적 청결주의(Methodological Hygiene)'를 통해, 코페르니쿠스적 우주론이 초래한 인간의 물리적 미미함을 오히려 창조주의 '역설적 은총'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수용한다. 또한 찰스 다윈(C. Darwin)의 생물학적 진화 사실을 경험과학의 영역으로 긍정하면서도, 이를 무단 확장한 에른스트 헤켈(E. Haeckel)의 유물론적 '진화주의(Evolutionism)'는 단호히 타파

¹¹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 part 1, *The Doctrine of God*, trans. T. H. L. Parker et al. (Edinburgh: T&T Clark, 1957), 85-88. 이 대목은 인간의 이성을 척도로 삼는 아날로기아 엔티스의 신학적 이상숭배적 위험성에 대한 바르트의 근원적 비판을 다루고 있다.

¹²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V, part 3.1,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trans. G. W. Bromiley (Edinburgh: T&T Clark, 1961), 110-115. 이 본문은 유일한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세속 영역에서 반사되는 '작은 빛들'에 대한 빛들의 교리를 전개하고 있다.

¹³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304-308. 이 자료는 바빙크의 자연과 일반 계시에 대한 이해와 바르트의 인식론적 차이를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1차 문헌이다.

¹⁴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1, *The Doctrine of Creation*, trans. J. W. Edwards et al. (Edinburgh: T&T Clark, 1958), 42-45, 94-97. 이는 창조를 언약의 외적 근거로 확립하며 자연의 객관적 무대를 긍정하는 본문이다.

하는 치밀한 교의학적 정합성을 보여준다. 이 대목에서 본 논문은 헤겔의 일원론을 타파함에 있어 바르트의 교의학적 배경과 칼 하임(Karl Heim)의 과학철학적 변증이 어떻게 본질적인 방법론적 차이를 보이면서도 현대 과학 신학 구축에 상보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압축적으로 대비할 것이다.

나아가 후기의 『하나님의 인간성(Die Menschlichkeit Gottes)』과 화해론(IV/3.1)에 이르러서는, 창조주가 기꺼이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근거로 물질세계 전체를 향한 존재론적 긍정("Yes")과 '세속의 비유(Säkulare Gleichnisse)'를 선언하기에 이른다.¹⁵ 본 논문은 이러한 바르트의 유기적 궤적이 초기의 철저한 방어선을 넘어, 어떻게 토머스 F. 토런스(T. F. Torrance)의 인식론적 동형성 논증과 크리스찬 링크(C. Link)의 비유 해석학으로 계승되어 우주의 시냅스와 로고스의 융합을 노래하는 전일적 과학신학(Holistic Scientific Theology)으로 완성될 수 있었는지를 입체적으로 논증할 것이다.¹⁶

특히 이 과정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바르트의 섭리론과 '빌려주신 생명(Lehen)'의 윤리는, 기계론적 우주관의 한계를 돌파하고 생명을 수치화하려 했던 당대 우생학적 폭력을 교의학적으로 분쇄한 가장 치열한 실천적 전장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르트가 수호한 이 생명윤리적 성취가 단순한 이론적 담론을 넘어, 오늘날 생명을 기술로 개조하려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트랜스휴머니즘에 맞서 피조계의 존엄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예언자적인 나침반이 됨을 최종적으로 논증할 것이다.

II. 제1기: 철저한 부정과 자연신학의 절대적 배경 (1920-1930년대)

A. 역사적·정치적 배경: 우상숭배로 전락한 자유주의 신학

19세기 독일 자유주의 신학을 주도했던 '문화 개신교주의(Kulturprotestantismus)'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진보, 그리고 문화적 성취를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 실현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쉼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의 '절대 의존 감정'에서 출발하여 리츨(A. Ritschl)의 '도덕적 왕국'을 거쳐 하르낙(A. von Harnack)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인간의 내면적 종교성과 역사적 진보라는 '자연적' 범주에서 신학의 출발점을 찾고자 시도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인간 중심적 자연신학의 치명적인 낙관론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철저히 파산하고 만다.

1914년 8월, 독일의 최고 지성인 93명이 빌헬름 2세의 전쟁 정책을 지지하는 이른바 '93인의 선언문(Manifesto of the Ninety-Three)'을 발표했을 때, 바르트는 그 명단에서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며 따랐던 은사 아돌프 폰 하르낙과 빌헬름 헤르만(W. Herrmann)의 이름을 발견하고 깊은 절망과 충격에 빠졌다.¹⁸ 바르트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학자들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선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했다. 그것은 인간의 문화

¹⁵ Karl Barth, *The Humanity of God*, trans. John Newton Thomas and Thomas Wieser (Richmond: John Knox Press, 1960), 40-45. 이 문헌은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물질세계 전체에 대한 신학적 긍정으로 이어지는 존재론적 전환을 설명하고 있다.

¹⁶ 정승훈, *op.cit.*, 420-425. 이 책은 바르트의 기독교론적 토대가 어떻게 과학과 신학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우주적 교향곡으로 나아가는지 동시대적 관점에서 해설한다.

¹⁷ Karl Barth, *Protestant Theology in the Nineteenth Century: Its Background and History*, trans. Brian Cozens and John Bowden (London: SCM Press, 1972), 425-430, 654-658. 이 대목은 바르트가 쉼라이어마허와 리츨 학파의 신학적 방법론이 지닌 인간 중심적 한계와 자연신학적 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¹⁸ Eberhard Busch, *Karl Barth: His Life from Letters and Autobiographical Texts*, trans. John Bowde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81-82. 이는 1914년 8월, 93인의 지성인 선언문을 접한 바르트의 전기적 충격과 19세기 신학의 파산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서술한 1차 문헌 기반 자료이다.

적 성취와 맹목적인 애국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동일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론 자체가 완전히 파산했음을 보여주는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었다. 인간의 역사와 이성, 곧 타락한 '자연'의 영역에서는 결코 하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바르트의 확고한 신학적 신념은 바로 이 참담한 역사적 경험의 토대 위에서 잉태되었다.¹⁹

이후 1930년대에 이르러 독일 전역을 휩쓴 나치즘(Nazism)의 광풍은 바르트의 이러한 신학적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자, 이에 부역했던 어용 교권 세력인 '독일적 그리스도인(Deutsche Christen)'들은 십자가 옆에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를 나란히 내거는 만행을 저질렀다.²⁰ 이들은 독일 민족의 고유한 혈통(Blood)과 영토(Soil), 그리고 히틀러라는 지도자의 정치적 등장을 하나님이 게르만 민족에게 주신 '새로운 자연 계시(natural revelation)'이자 거룩한 창조 질서로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쳤다.

바르트는 이러한 국가주의적 우상숭배의 배후에 파리를 틀고 있는 자연신학적 구조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명확히 꿰뚫어 보았다. 자연, 민족, 국가, 혹은 역사적 사건을 계시의 통로로 인정하는 인식론적 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두게 되면, 필연적으로 타락한 세속 권력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²¹

이러한 시대적 우상숭배의 폭력성에 맞서 바르트가 전개한 가장 치열하고 예언자적인 영적 투쟁의 결과물이 바로 1934년의 『바르멘 신학선언(Barmen Theological Declaration)』이다. 이 선언문의 제1항은 "우리는 성경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들어야 하고, 살고 죽기까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자연이나 역사, 그리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계시의 방편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자연신학적 시도를 교의학적으로 원천 봉쇄했다.²² 따라서 초기 바르트에게 있어 자연신학을 철저히 배격하는 일은 순수한 상아탑 내부의 사변적 방법론 논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광기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인간 중심의 우상숭배로부터 신학의 본질을 구출해 내기 위한 생사가 걸린 가장 절박한 신앙적·윤리적 결단이었다.²³

B. 신학적·철학적 단절: 무한한 질적 차이의 선언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적 파산과 나치즘의 폭력성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통과하며, 바르트는 자연신학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포획하려는 인식론적 오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우상숭배적

¹⁹ Karl Barth, *The Humanity of God*, trans. John Newton Thomas and Thomas Wieser (Richmond: John Knox Press, 1960), 14-15. 이 부분은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주의적 한계를 반성하며, 자연과 역사에서 신학의 토대를 분리해야 했던 초기 위기 신학의 필연성을 바르트 자신의 육성으로 회고하는 내용이다.

²⁰ Arthur C. Cochrane, *op.cit.*, 74-79. 이 문헌은 '독일적 그리스도인'들이 나치즘 이데올로기와 기독교 신앙을 혼합하며 십자가와 하켄크로이츠를 결합시킨 역사적 상황과 그들의 강령을 분석하고 있다.

²¹ Karl Barth, *Theological Existence To-day! (A Plea for Theological Freedom)*, trans. R. Birch Hoyl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33), 48-52. 여기에는 나치의 정치적 동화 정책인 '글라이히샬퉁(Gleichschaltung)'에 맞서 교회의 독자적 존립 근거를 말씀에만 두어야 한다는 바르트의 예언자적 논증이 담겨 있다.

²² Arthur C. Cochrane, *op.cit.*, 237-242. 이 책은 바르멘 신학선언의 영역본 전문 및 제1항에 담긴 자연신학 배격의 교리적·역사적 함의를 다루고 있다.

²³ 정승훈, *op.cit.*, 339-350. 이 문헌은 바르트의 자연신학 거부가 단순한 신학적 폐쇄성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신격화를 막기 위한 동시대적·예언자적 저항이었음을 해명한다.

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바르트는 신학의 토대를 인간의 경험이나 자연의 관찰에서 완전히 뽑아내어,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좁고도 절대적인 반석 위에 올려놓는 거대한 인식론적 혁명을 단행한다. 이 신학적·철학적 단절의 핵심 기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Infinite Qualitative Distinction)'와 '전적으로 타자이신 분(The Wholly Other, Ganz Andere)'으로서의 하나님 선언이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내면적 종교성이나 역사적 진보 안에서 신학의 출발점을 찾으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인식론적 연속성을 전제했다. 그러나 바르트는 1922년에 출간된 『로마서 강해』 제2판에서 쇠렌 키르케고르(S. Kierkegaard)의 통찰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하나님과 인간, 영원과 시간 사이에는 인간의 어떠한 지적·종교적 노력으로도 결코 건널 수 없는 절대적인 심연이 존재함을 천명했다.²⁴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나님은 우주의 물리적 기제나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감추어진 전적인 타자이시다.²⁵ 따라서 땅의 현실인 자연, 이성, 역사, 경험의 축적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려 하거나 신을 추론하려는 모든 종교적, 자연신학적 시도는 필연적으로 인간 자신을 투영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바벨탑을 쌓는 행위에 불과하다. 참된 계시는 인간의 상승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방식 곧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만 주어질 뿐이다.

둘째, 가톨릭 자연신학의 철학적 토대인 '존재의 유비(Analogia Entis)'에 대한 맹렬한 비판과 폐기이다. 존재의 유비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어떤 공통된 존재론적 유사성이나 지성적 연속성이 계층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의 전통적 견해이다. 바르트는 이 개념을 가리켜 적그리스도의 발명품이라는 극단적이고도 혹독한 수사를 동원하여 철저히 배격했다.²⁶ 바르트가 이토록 맹렬히 분노한 이유는 존재의 유비가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나 피조 세계의 자연적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독자적인 통로를 학문적으로 정당화해주기 때문이었다. 바르트에 따르면, 타락한 피조 세계와 인간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므로 자연이나 이성의 존재 안에는 계시를 담아내거나 매개할 수 있는 어떠한 연속적 흔적도 독립적으로 남아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바르트는 인간 측에 내재된 계시 수용의 선험적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믿음 안에서만 기적으로 성립하는 '신앙의 유비(Analogia Fidei)'만을 신학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정당한 인식론적 방법론으로 채택했다.²⁷ 이러한 바르트의 철저한 부정과 단절은 결코 피조 세계 자체를 혐오하거나 과학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학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

²⁴ Karl Barth, *The Epistle to the Romans*, trans. Edwyn C. Hosky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3), 10. 이 문헌의 제2판 서문에서 바르트는 쇠렌 키르케고르가 제시한 시간과 영원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 개념을 자신의 신학적 인식론을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론적 전제로 수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²⁵ *Ibid.*, 314-316. 로마서 8장 강해를 통해 바르트는 하나님이 인간의 종교적 경험이나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 전적인 타자이심을 철저하게 논증하며 인간 중심적 종교성이 지닌 내재적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고발한다.

²⁶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 part 1,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trans. G. W. Bromiley (Edinburgh: T&T Clark, 1975), xiii. 바르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존재의 유비를 가리켜 적그리스도의 발명품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며 자신이 가톨릭 신학자가 결코 될 수 없는 유일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자연신학적 토대의 수용 여부에 있음을 단호하게 천명한다.

²⁷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 part 1, *The Doctrine of God*, trans. T. H. L. Parker et al. (Edinburgh: T&T Clark, 1957), 81-85.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선험적 연속성을 제공하는 존재의 유비를 거부하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만 인식론적으로 주어지는 신앙의 유비만이 참된 하나님 인식의 유일한 통로임을 교의학적으로 확립하는 핵심 본문이다.

해 계시의 객관성과 기독교적 절대성이라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튼튼한 성벽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예언자적인 정치 작업이었다.

C. 에밀 브루너와의 논쟁 (1934)

바르트가 전개한 자연신학 거부의 역사적 궤적 가운데 그 인식론적 단절이 가장 극적이고도 맹렬하게 표출된 사건은 1934년 변증법적 신학의 오랜 동지였던 에밀 브루너(Emil Brunner)와의 격렬한 서면 논쟁이다. 1934년 브루너는 『자연과 은총(Natur und Gnade)』이라는 소책자를 발표하며,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자 시도했다. 브루너의 핵심 논지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상실했는지라도, 피조물로서의 인간성 안에는 여전히 '형식적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브루너는 이를 근거로 인간성 안에 계시의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식론적 '접촉점(Anknüpfungspunkt)'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연 계시를 일반 은총의 제한된 영역 속에서 수용하려 했다.²⁸

이에 대해 바르트는 『아니오! 에밀 브루너에 대한 답변(Nein! Antwort an Emil Brunner)』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통해 단호하고도 철저한 거절의 사자후를 토해낸다. 바르트의 교의학적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수용하기 위한 어떠한 선험적 접촉점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다. 바르트에게 있어 진정한 접촉점은 인간 측에 미리 준비된 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적적이고 주권적으로 인간 안에 '창조(creatio)'해 내시는 은혜의 결과물일 뿐이다.²⁹

이토록 바르트가 브루너의 작은 타협적 시도조차 용납하지 않고 극단적인 "아니오!"를 외친 이유는 단순히 학리적 고집이나 사변적인 방법론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1934년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자연이나 인간성 속에 내재된 계시의 가능성을 승인하는 일은, 곧바로 세속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치명적인 인식론적 구멍을 열어주는 행위와 다름없었다. 당시 나치즘과 결탁한 '독일적 그리스도인'들은 핏줄과 게르만 민족의 역사를 새로운 '자연 계시'로 포장하여 폭력적인 국가주의를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었다. 브루너가 제시한 자연과 은총의 연속성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러한 파시즘적 자연신학이 합법적으로 신학의 영토를 유린할 수 있는 논리적 교두보를 제공할 위험이 농후했다.³⁰

따라서 에밀 브루너를 향한 바르트의 단호한 선언은 시대의 광풍 속에서 교회가 이데올로기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아 올린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의 유일성만을 긍정하는 바르트의 철저한 '기독교적 집중(Christological Concentration)'은 인간의 자연적 가능성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우

²⁸ Emil Brunner and Karl Barth, *Natural Theology: Comprising "Nature and Grace" by Professor Dr. Emil Brunner and the Reply "No!" by Dr. Karl Barth*, trans. Peter Fraenkel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2), 31-33. 에밀 브루너가 타락 이후에도 형식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복음 수용의 접촉점 개념을 논증하며 자연 계시의 효용성을 변증하는 본문이다.

²⁹ *Ibid.*, 120-122. 칼 바르트가 브루너의 접촉점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만 접촉점이 기적으로 창조됨을 교의학적으로 선포하는 핵심 논변이다.

³⁰ 정승훈, *op.cit.*, 351-365. 바르트의 철저한 기독교적 집중과 자연신학 거부가 단순한 학리적 고집이 아니라 나치즘과 같은 시대적 우상숭배로 통하는 치명적 구멍을 차단하기 위한 예언자적 방어선이었음을 동시대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자료이다.

상충배로 치닫는 세속의 이데올로기를 신학적으로 완벽히 차단하려는 필연적이고 예언자적인 영적 투쟁이었다.³¹

III. 제2기: 인식론적 전환과 학문(Wissenschaft)으로서의 신학 정립

A. 대상의 고유성에 충실한 독자적 학문론

1920년대 초기 바르트의 신학이 시대적 이상충배를 타파하기 위해 철저한 부정과 파괴의 파토스(Pathos)를 지닌 '위기 신학'이었다면, 1930년대 중기에 접어들며 그의 사상은 신학을 가장 엄밀하고 정당한 '학문(Wissenschaft)'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는 거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 바르트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자유주의 신학과 자연신학을 거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신학이 철학적 기초주의나 자연과학적 실증주의의 방법론에 종속되거나 눈치 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당당하고 객관적인 학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변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학적 방법론 정립의 가장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저작은 1931년에 출간된 『안셀무스: 이성을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다.³² 바르트는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를 깊이 연구하면서, 데카르트(R. Descartes) 이래의 근대 철학이 전제해 온 주체 중심적 인식론을 전면적으로 해체한다. 바르트가 안셀무스로부터 도출해 낸 신학적 인식론의 대원칙은 모든 진정한 학문의 방법론은 반드시 그 연구 대상(Object) 자체가 지니는 고유한 본성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³

생물학이 생명체를 다루기 위해 현미경을 동원하고 천문학이 우주를 관찰하기 위해 망원경을 사용하듯, 대상의 고유한 속성이 탐구 방식을 지시하는 것이 참된 과학적 태도이다. 신학이 탐구하는 대상은 인간의 내면적 종교성이나 형이상학적 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이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타당한 학문적 방법론은 칸트의 선험적 범주나 술라이어마허의 경험론이 아니라, 대상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방식에 순종하는 '믿음(Fides)'일 수밖에 없다.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철저한 지성적 탐구인 이해가 뒤따르는 것(fides quaerens intellectum)이야말로 신학이라는 학문이 취해야 할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임을 천명한 것이다.³⁴

³¹ Thomas F. Torrance, *Karl Barth, Biblical and Evangelical Theologian* (Edinburgh: T&T Clark, 1990), 138-141. 토머스 토런스가 바르트의 기독교론적 집중이 지니는 인식론적 필연성을 분석하며 자연신학의 배제가 계시의 객관성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논증하는 부분이다.

³² Karl Barth, *Fides Quaerens Intellectum: Anselm's Proof of the Existence of God in the Context of His Theological Scheme*, trans. Ian W. Robertson (London: SCM Press, 1960), 26-28. 바르트가 안셀무스의 신학 방법론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신학의 대상이 철학적 전제나 이성적 사변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리를 드러내는 고유한 방식을 지녔음을 논증하는 핵심 본문이다.

³³ Thomas F. Torrance, *Karl Barth, Biblical and Evangelical Theologian* (Edinburgh: T&T Clark, 1990), 135-136. 토머스 토런스가 바르트의 안셀무스 연구를 신학적 객관주의 확립의 결정적 분수령으로 평가하며 탐구 대상의 본성이 방법론을 지시한다는 대상의 본성에 따르는 사고 원리를 명확히 도출하는 과정이다.

³⁴ 정승훈, *op.cit.*, 366-413. 정승훈 교수가 바르트의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 명제가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극단적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현대 과학과의 동시대적이고 상보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한 위대한 학문적 출발점이었음을 분석한 자료이다.

바르트의 독자적 학문론 정립 과정에서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리논리학자인 하인리히 솔츠(Heinrich Scholz)와의 대화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³⁵ 솔츠는 바르트에게 "신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다면 과연 체계성과 방법론을 갖춘 학문(Wissenschaft)일 수 있는가?"라고 직접적으로 도전했다.³⁶ 이에 대해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 I/1 서론에서 신학은 객관적 중립성이 아니라 대상(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탐구라는 점에서 분명한 학문(과학)이라고 응답했다.³⁷ 나아가 바르트는 솔츠와의 교류를 통해 자연과학 역시 완전히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고유의 전제와 방법, 신뢰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학문론적 한계를 깨닫고, "신학만 전제가 있다"는 비판을 효과적으로 논박했다. 결과적으로 『교회 교의학』을 관통하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논리적 엄밀성(정의, 전제, 귀결의 구조)은 솔츠와의 논쟁을 통해 버려진 독일 학문 전통의 결실이었다.³⁸

이러한 대상 중심적 방법론은 이듬해 출간된 필생의大作 『교회 교의학(Kirchliche Dogmatik) I/1』(1932) 서론에서 신학을 엄밀한 '자유로운 학문(Wissenschaft)'으로 선언하는 토대가 된다. 바르트는 독일어권의 폭넓은 '학문' 개념 속에서 신학을 명확히 과학(Wissenschaft)의 반열에 올리면서도, 신학이 다른 일반 경험과학들과 동일한 인식론적 척도나 보편적 증명 방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신학을 완전히 해방시킨다.³⁹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유일무이한 대상을 다루기에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흉내 낼 필요가 없으며, 오직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립하는 '신앙의 유비(Analogia Fidei)'만을 자신의 고유한 인식론적 도구로 채택한다.⁴⁰

바르트의 이러한 인식론적 기획은 헤르만 바빙크(H. Bavinck)나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와 같은 정통 개혁신학자들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신학의 학문성을 변증하려 했던 노력과 비교해 볼 때, 일반 계시의 인식론적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오직 기독교적 계시에만 학문의 객관성을 정초한다는 점에서 더욱 급진적이고 철저한 면모를 보인다.⁴¹ 바르트가 수렴한 이 독자적인 학문론은 훗날 알리스터 맥그래스(A. E. McGrath)나 토머스 F. 토런스(T. F. Torrance)에 의해 인간의 선험적 편견을 버리고 탐구 대상에 인식론을

³⁵ Heinrich Scholz, "Wie ist eine evangelische Theologie als Wissenschaft möglich?" *Zwischen den Zeiten* 9 (1931): 8-53. 하인리히 솔츠가 신학의 학문성에 대해 제기한 6가지 엄격한 방법론적 기준을 담고 있는 기념비적 논문으로,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서론 집필에 결정적인 변증적 동기를 제공한 1차 문헌이다.

³⁶ Heinrich Scholz, "Wie ist eine evangelische Theologie als Wissenschaft möglich?" *Zwischen den Zeiten* 9 (1931): 8-53.

³⁷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 Part 1: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trans. G. W. Bromiley (Edinburgh: T&T Clark, 1975), 7-9. 바르트가 솔츠의 도전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며,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자연과학적 우주론(cosmology)에 얽매이지 않으며 신학은 그 고유한 대상의 본성에 종속되는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학문임을 확립하는 핵심 본문이다.

³⁸ Wolfhart Pannenberg, *The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rans. Francis McDonag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6), 265-270. 판넨베르크가 솔츠와 바르트의 논쟁을 과학철학적으로 분석하며, 바르트가 솔츠의 수리논리학적 기준을 넘어 신학을 타 학문의 전제에 종속시키지 않고도 최고의 논리적 엄밀성을 갖춘 학문으로 정초해 냈음을 평가한 자료이다.

³⁹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 part 1,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trans. G. W. Bromiley (Edinburgh: T&T Clark, 1975), 3-11. 바르트가 교회 교의학 서론에서 신학을 다른 일반 경험 학문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자유로운 학문으로 규정하고 세속 학문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자적 방법론의 당위성을 선포하는 구절이다.

⁴⁰ *Ibid.*, 238-243. 가톨릭의 존재의 유비를 대체하여 오직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사건 속에서만 일어나는 신앙의 유비만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교의학적 척도임을 확립하는 본문이다.

⁴¹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29-32. 헤르만 바빙크가 신학을 학문으로 엄밀하게 정립함에 있어 계시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측면은 바르트와 궤를 같이하나 일반 계시의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유기적 세계관을 채택하는 점에서 확연히 대비되는 인식론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거이다.

맞추는 이른바 '대상의 본성에 따르는 앎(Kata Physin)'의 원리로 심화되어, 아인슈타인의 현대 물리학과 신학이 구조적 동형성을 지니며 대화할 수 있는 과학신학의 눈부신 길을 열어젖히게 된다.⁴²

B. 역설적 성취: 방법론적 청결주의(Methodological Hygiene)와 자연과학의 자율성 확보

1934년 에밀 브루너(Emil Brunner)를 향해 던진 바르트의 단호한 "아니오!(Nein!)"는 오랜 기간 동안 과학과 이성에 대한 신학적 폐쇄성이나 맹목적인 반지성주의의 표상으로 오해받아 왔다. 그러나 바르트의 교의학적 궤적을 정밀하게 추적해 보면, 그가 맹렬히 거부한 것은 인간의 타락한 이성과 불완전한 자연 관찰을 통해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추론하려 했던 펠라기우스적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이었을 뿐, 결코 피조 세계의 숭고한 물리적 질서를 가치중립적으로 탐구하는 '자연과학(Natural Science)' 자체가 아니었다.⁴³ 오히려 바르트는 신학이 타 학문의 방법론에 의존하여 계시를 증명하려 들거나, 반대로 성경의 권위로 타 학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월권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방법론적 청결주의(Methodological Hygiene)'를 채택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의 독점적 권위만을 승인한 이 철저한 기독교론적 집중은, 결과적으로 자연과학을 어설픈 신학적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완벽한 방법론적 자율성(Methodological Autonomy)을 부여하는 위대한 인식론적 성취를 가져왔다.⁴⁴

18세기와 19세기의 전통적인 자연신학은 피조 세계의 복잡성이나 생물학적 관찰을 통해 창조주의 존재와 속성을 증명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하의상달식(Bottom-Up) 변증학은 필연적으로 자연과학의 고유한 경험적 탐구 영역을 신학이 부당하게 침범하고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자연의 미지 영역에 신의 초자연적 활동을 억지로 끼워 넣는 '틈새의 하나님(God of the gaps)' 논리는 현대 신학에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되었다. 오늘날 우주물리학과 신경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138억 년 우주 팽창을 일으킨 빅뱅(Big Bang)의 기원이나 대뇌 피질의 복잡한 시냅스(Synapse) 작동 원리, 그리고 생명체의 유전자(DNA) 염기서열을 정밀한 물리·화학적 언어로 해명해 낼수록, 그 무지의 틈새에 갇혀 있던 신의 자리는 점차 축소되고 종국에는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 치명적인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⁴⁵

⁴² Alister E. McGrath, *A Scientific Theology*, vol. 2, *Realit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220-225.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바르트의 독자적 신학 학문론을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며 자연과학과 신학이 각자의 대상에 충실하면서도 어떻게 상호 존중하는 과학신학적 대화를 이룰 수 있는지 논증하는 부분이다.

⁴³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1: The Doctrine of Creation, §41, trans. J. W. Edwards, O. Bussey, and Harold Knight (Edinburgh: T&T Clark, 1958), 42-44. 바르트는 이 책의 서두에서 창조 사역에 대한 인간 이성의 독립적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며 신학의 탐구 대상과 방법론이 오직 계시된 말씀의 본성에 종속되어야 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⁴⁴ 정승훈, *op.cit.*, 120-125. 정승훈 교수는 자연신학에 대한 바르트의 절대적 거부가 자연과학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학적 목적론의 강박으로부터 경험과학을 해방시켜 완전한 방법론적 자율성을 보장한 획기적 인식론적 혁명임을 심도 있게 논증한다.

⁴⁵ Alister E. McGrath, *A Scientific Theology*, Vol. 1: *Natur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220-225.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틈새의 하나님 논리가 지닌 철학적 빈곤함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바르트가 자연신학을 파괴함으로써 과학 발전과 함께 신앙의 영역이 축소되는 치명적 한계를 신학 내부에서 원천적으로 해소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바르트는 신학의 대상을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격리함으로써, 이러한 어설픈 변증학의 족쇄를 신학 내부에서 완전히 폐기 처분했다. 신학이 자연의 틈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증명하려는 강박을 중단했을 때, 현대 경험과학은 우주의 우발적 질서와 미세조정(Fine-tuning) 메커니즘을 선부른 목적론적 억압 없이 철저히 가치중립적이고 실증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획득했다. 나아가 바르트는 과학이 자신의 경험적 한계를 넘어 형이상학적 세계관(Weltanschauung)이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과학주의적 월권 또한 날카롭게 경계했다. 그는 우주를 스스로 굴러가는 거대한 시계태엽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을 우주 밖으로 밀어낸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의 기계론적 이신론(Deism)은 신학적 반역으로 비판했지만, 천체의 운동 법칙을 해명하며 우주의 수학적 조화 속에서 창조주의 숭고한 영광을 경외함으로 찬양했던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의 미학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했다.⁴⁶ 이는 과학이 현상을 탐구하는 본연의 자리에 머물 때, 신학은 결코 과학적 데이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확증한 것이다.

이러한 학문 영역의 명확하고 청결한 분리는 과학과 신학을 적대적 대립 관계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각자의 탐구 대상에 철저히 충실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가장 역동적인 상보적(Complementary) 융합을 이룰 수 있는 튼튼한 존재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 구도 속에서 자연과학은 광활한 우주와 미시적인 신경망이 '어떻게(How)' 작동하는지를 철저히 인과론적이고 수학적 언어로 치열하게 설명해 내는 고유한 사명을 감당한다. 반면 신학은 그토록 정교한 우주가 대체 '누구에 의해, 왜(Who and Why)' 창조되었는지, 즉 이 물리적 세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교제를 상연하기 위해 마련된 웅장한 무대라는 궁극적 내적 목적(Telos)을 선포하는 본연의 예언자적 사명에 집중하게 된다.

바르트가 확립한 이 눈부신 방법론적 자율성은 스코틀랜드의 개혁파 신학자 토머스 F. 토런스(Thomas F. Torrance)에 이르러 현대 경험과학의 존립 근거를 신학적으로 정초하는 거대한 성취로 만개한다. 토런스는 바르트의 창조론 교의 저변에 깔린 '우발성(Contingency)'과 '합리성(Rationality)'이라는 두 기둥이 곧 현대 과학을 가능케 한 핵심 인식론적 동력임을 밝혀냈다.⁴⁷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자유 안에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Creatio ex nihilo)하셨기에, 이 우주는 필연적으로 잉태된 유출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르게 존재할 수 있었던 철저한 우발적 질서를 지닌다. 바로 이 우발성 때문에 인간은 선형적인 사변만으로 우주의 원리를 연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험실로 나가 현미경과 망원경을 통해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실증해야만 한다. 동시에 이 우발적 세계는 태초의 말씀이신 로고스(Logos)에 의해 지음 받았기에 인간의 수학과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고도의 합리적 구조를 띤다.⁴⁸

결과적으로 바르트의 이 인식론적 혁명은 포스트휴먼 시대를 마주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깊은 실제적 도전을 던진다. 현대 신학은 뇌과학이나 양자역학의 눈부신 발전을 두려워하여 과거의 화석화된 문자주의의 계토로 도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덧씌워진 왜곡된 변증학의 짐을 벗어던지고, 현대

⁴⁶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2: The Doctrine of Creation, §46, trans. G. W. Bromiley, J. W. Edwards, O. Bussey, and Harold Knight (Edinburgh: T&T Clark, 1960), 3-8. 바르트는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후 인간을 둘러싼 우주적 환경의 변화를 서술하면서 뉴턴의 이신론적 기계주의는 비판하는 동시에 천체의 수학적 조화 속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직관한 케플러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조명하여 과학과 신학의 올바른 경계 설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⁴⁷ Thomas F. Torrance, *Divine and Contingent 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32-40. 토머스 토런스는 바르트의 창조론에 내재된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가 경험적 우발성과 로고스적 합리성이라는 현대 과학의 두 가지 필수적 전제를 어떻게 가장 강력하게 신학적으로 정초하는지를 상세하게 해명한다.

⁴⁸ Thomas F. Torrance, *Theologic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105-112. 신학과 과학이 대립하지 않고 각자의 탐구 대상이 지닌 고유한 본성(Kata Physin)에 철저히 충실할 때 참된 비판적 실재론 아래에서 역동적인 상보적 융합이 가능함을 증명하며 현대 과학신학의 기초를 확립한 문헌이다.

과학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창조계의 경이로운 구조적 신비들을 위대한 창조주의 지혜로 넉넉히 껴안고 당당히 소통할 수 있는 위대한 자유를 획득한 것이다.

IV. 제3기: 창조와 언약의 변증법, 그리고 물질세계의 존재론적 긍정

A. 창조신학의 구조적 확장 (CD III, 1940년대)

1930년대의 치열한 인식론적 정초 작업을 마친 바르트는, 1940년대에 접어들어 필생의 대작 『교회 교의학(Kirchliche Dogmatik)』 제3권 창조론을 집필하며 자신의 신학적 시야를 계시의 구원론적 방어선에서 창조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우주적 지평으로 장대하게 넓혀 나간다. 초기 위기 신학이 자유주의와 나치즘의 위협으로부터 복음의 절대성을 지켜내기 위해 두꺼운 성벽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었다면, 중기의 창조론은 그 견고해진 기독교론적 중심축(Solus Christus)을 바탕으로 성벽의 창문을 열고 피조 세계의 물리적 실재와 자연과학의 탐구 영역을 신학적으로 넉넉히 품어내는 거대한 구조적 확장이었다.

이 시기 바르트의 창조신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는 "창조는 언약의 외적 근거(external basis)이며, 언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internal basis)이다"라는 위대한 신학적 명제이다.⁴⁹ 크리스찬 링크(C. Link) 교수가 정밀하게 분석하듯, 이 역설적 명제는 자연과학과 신학이 서로 섞이거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세련된 상보적(Complementary)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교의학적 토대를 제공한다.⁵⁰ 자연 세계, 곧 현대 물리학이 밝혀내는 우주의 기원이나 유전학이 추적하는 생명의 진화 메커니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피조물의 언약적 사랑을 상연하기 위해 세워진 거대하고 객관적인 극장(무대)으로 그 존재론적 지위가 격상된다.

이 거대한 우주적 교향곡 속에서, 팽창하는 우주의 물리적 구조와 생명체의 정교한 기제 등 '외적 근거'를 탐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연과학의 정당한 몫이다. 과학은 어떠한 신학적 간섭이나 선부른 목적론적 억압 없이 완전한 방법론적 자율성을 가지고 이 무대의 자재와 구조를 가치중립적으로 해명할 자유를 누린다. 반면 신학은 그 경이로운 무대가 대체 '왜' 창조되었는가 하는 '내적 목적(Telos)', 곧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대본을 해명하고 언약적 교제를 선포하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한다. 이는 스티븐 제이 굴드(S. J. Gould)가 제안한 '비중첩적 교도권(NOMA, Non-Overlapping Magisteria)'과 외견상 유사한 영토 분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굴드의 NOMA가 종교와 과학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서로 간섭하지 않는 평행선이나 상호 무관심을 그은 방어적 타협에 불과하다면, 바르트와 토런스를 거쳐 알리스터 맥그래스(A. E. McGrath)로 이어지는 과학신학은 각자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면서도 결국 '로고스의 합리성' 안에서 서로 교차하고 입맞춤하는 '상호 관입적 상보성'이자 '대수렴(Convergence)'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⁵¹

⁴⁹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1, *The Doctrine of Creation*, trans. J. W. Edwards et al. (Edinburgh: T&T Clark, 1958), 42-44. 바르트가 창조를 언약의 외적 근거로 확립하며 우주라는 물리적 무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신학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는 핵심 본문이다.

⁵⁰ Christian Link, *Schöpfung: Schöpfungstheologie angesichts der Herausforderungen des 20. Jahrhunderts* (Band 7/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1), 463-480. 크리스찬 링크 교수가 바르트의 창조와 언약 명제를 심층 분석하여 자연과학과 신학이 서로의 영역을 온전히 존중하면서도 기독교론적 섭리 안에서 상보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를 구축했음을 입증한 부분이다.

⁵¹ Alister E. McGrath, *A Scientific Theology*, Vol. 1: Natur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220-225. 스티븐 제이 굴드의 비중첩적 교도권 개념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신학과 과학이 철저한 분리를 넘어 어떻게 기독교론적 실재 안에서 통전적인 수렴을 이룰 수 있는가를 바르트 신학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다.

나아가 바르트는 현대 천체물리학과 우주론이 가져온 코페르니쿠스적 전환(Copernican turn)을 두려움 없이 수용하며 이를 신학적 은총으로 역전시킨다. 태양계 중심의 세계관이 붕괴하고 인간이 무한한 우주의 한 변방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근현대 천문학의 발견 앞에서, 많은 근대 신학자들은 이를 신앙의 위기로 여겼다. 그러나 바르트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중심성이 곧 신학적 중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오히려 이토록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 철저히 티끌처럼 미미한 존재라는 우주물리학적 실재는, 그토록 보잘것없는 존재를 지극한 사랑으로 연약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창조주의 '압도적이고 역설적인 은총'을 가장 눈부시게 돋보이게 하는 거룩한 배경이 된다고 보았다.⁵²

이러한 엄밀한 구별은 생물학과 진화론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르트는 창세기 1-2장의 창조 기사를 자연과학적 문자주의로 읽어내려는 근본주의적 '창조과학(Creation Science)'의 시도를 단호하게 배격했다. 바르트에게 있어 성서의 창조 기사는 과학적 관찰 보고서나 실증적 역사(Historie)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신적 기원과 언약적 의미를 담아내는 지혜롭고 거룩한 이야기, 즉 '사가(Sage)'이다.⁵³ 따라서 바르트는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생물학적 발견이 인간의 육체적 기원을 진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를 경험과학의 정당한 탐구 영역으로 존중하고 긍정했다. 그러나 생물학적 진화론이 과학의 한계를 넘어 만물의 기원과 목적을 설명하려는 포괄적 세계관으로 무단 확장될 때, 바르트는 이를 맹렬히 타파했다. 그는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의 유물론적 '일원론(Monism)'과 형이상학적 '진화주의(Evolutionism)'를 근대의 새로운 우상숭배로 규정하며 철저히 비판했다. 인간이 지닌 존엄의 특수성(Imago Dei)은 생물학적 유전자 서열이나 해부학적 진화의 산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은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⁵⁴

바르트가 비판한 것은 진화생물학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적 설명을 존재의 궁극적 설명으로 확대하여 생물학을 존재론으로 환원해버린 헤켈의 '과학주의(Scientism)'였다.⁵⁵ 헤켈은 '물질과 정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일원론을 바탕으로 종교를 과학으로 대체하려 했으며, 특히 인간 태아가 진화의 단계를 반복한다는 '발생반복설(Recapitulation theory)'을 주창하여 인간 존재 전체를 자연 과정 속의 고등 동물로 축소시켰다.⁵⁶ 바르트는

⁵²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2: The Doctrine of Creation, §46, trans. G. W. Bromiley, J. W. Edwards, O. Bussey, and Harold Knight (Edinburgh: T&T Clark, 1960), 3-8.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가져온 우주론적 전환을 다루면서 인간의 물리적 미미함이 오히려 창조주의 주권적 선택과 역설적인 은총을 극대화하는 신학적 장치로 전환됨을 변증하는 대목이다.

⁵³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1: The Doctrine of Creation, §41, trans. J. W. Edwards, O. Bussey, and Harold Knight (Edinburgh: T&T Clark, 1958), 81-84. 창세기 창조 기사를 실증적 역사나 과학 보고서가 아닌 신학적 의미를 담은 사가로 규정함으로써 문자주의적 창조과학의 오류를 배격하고 진화 메커니즘 등 경험과학의 자율적 지위를 굳건히 지지하는 부분이다.

⁵⁴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2: The Doctrine of Creation, §46, trans. G. W. Bromiley, J. W. Edwards, O. Bussey, and Harold Knight (Edinburgh: T&T Clark, 1960), 85-90. 바르트가 인간을 피조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19세기의 생물학적 환원론을 비판하며 에른스트 헤켈의 유물론적 일원론이 지닌 형이상학적 월권과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자연신학적 우상숭배로 전락했는지를 엄격한 방법론적 청결주의의 관점에서 논박하는 대목이다.

⁵⁵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2: *The Doctrine of Creation*, trans. G. W. Bromiley et al. (Edinburgh: T&T Clark, 1960), 71-76. 바르트가 헤켈을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19세기 통합된 세계관을 열망하던 근대 정신의 상징으로 보면서도, 생물학적 탐구 영역을 넘어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재단하려 했던 과학주의(Scientism)의 오류를 치밀하게 논박하는 대목이다.

⁵⁶ Ernst Haeckel, *The Riddle of the Universe at the Close of the Nineteenth Century*, trans. Joseph McCab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00), 62-65, 344-346. 헤켈의 유물론적 일원론과 발생반복설이 집대성된 주저로, 바르트가 비판의 표적으로 삼았던 19세기 말의 과학적 환원주의와 사회진화론적 인간 이해의 철학적 전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1차 문헌이다.

이러한 사고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적 구별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독특성을 부정한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더욱이 헤겔의 진화주의는 인종 서열화와 우생학적 사고를 정당화하는 사회진화론으로 이어져 인간의 가치를 유전과 생물학적 능력으로 평가하게 만들었으며, 바르트는 나치 시대에 이러한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목에서 바르트의 교의학적 배경은 동시대의 신학자 칼 하임(Karl Heim)이 헤겔의 일원론을 타파하려 했던 과학철학적 변증 방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칼 하임은 다차원적 공간(multidimensional space) 개념과 비유클리드 기하학 등 당대 최신 물리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헤겔의 유물론적 일원론이 지닌 과학적, 철학적 한계를 내부로부터 논리적으로 논파하려 시도했다.⁵⁷ 반면, 바르트는 과학철학적 논증에 기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철저한 기독교적 통제를 통해 헤겔의 과학주의적 일원론을 교의학의 외부로 쳐내는 방식을 택했다. 하임이 과학의 언어로 과학주의를 해체하려 한 '변증학적 접근'이었다면, 바르트는 대상의 고유성에 기반을 둔 '방법론적 청결주의'를 고수했던 것이다. 비록 방법론적 방향성은 달랐으나, 두 거장의 이러한 상보적 투쟁은 훗날 토머스 F. 토런스로 이어지는 현대 과학신학이 유물론적 환원주의를 극복하고 견고하게 구축되는 데 필수적인 인식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 III/2』(인간론)에서 생물학과 의학의 성과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이를 철저히 수용하면서 기독교 인격주의에 기반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샤를로테 폰 키르쉬바움(Charlotte von Kirschbaum)의 방대한 여성학·심리학 문헌 조사와, 빅토르 폰 바이체커(Viktor von Weizsäcker)의 의학적 인간학 통찰이 바르트의 신학적 인간 이해와 결합하여 놀라운 공동의 학문적 결실을 맺었다.⁵⁸

바르트는 이 저작(명제 43~47)을 통해 인간을 생물학적 개체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계약-동반자(covenant partner)'이자 영혼과 몸이 불가분하게 결합된 '통일체(영혼의 육체)'로 정의했다.⁵⁹ 인간은 몸을 가진 영혼이며 영혼을 가진 몸으로서, 자연적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 및 타인과 관계하는 인격적 존재이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인간 내부의 이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나타난 남녀의 '관계성(analogia relationis)'에서 찾았으며, 참된 인간성의 궁극적 의미는 생물학 종(Homo sapiens)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드러난다고 선언했다.⁶⁰

오히려 장엄한 우주의 진화 과정이나 뇌 중심부의 윌리스 동맥륜(Circle of Willis)과 시냅스가 빚어내는 정교한 신경망의 복잡성을 밝혀내는 현대 과학자들의 탐구 현장은, 창조주가 빚어내신 우발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질서(Contingent and Rational Order)를 해명하는 경이로운 무대로서 확고한 신학적 승인을 얻게 되었다.⁶¹

⁵⁷ Karl Heim, *The Transformation of the Scientific World View*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3).

⁵⁸ Suzanne Selinger, *Charlotte von Kirschbaum and Karl Barth: A Study in Biography and the History of Theology*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8), 85-95. 샤를로테 폰 키르쉬바움이 『교회 교의학』 III/2 집필 당시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철학, 심리학, 생물학 문헌을 섭렵하여 바르트의 인간론을 현대 학문과 대화하게 만든 '공동 형성자'였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역사신학적 연구이다.

⁵⁹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2: *The Doctrine of Creation*, 325-333. 바르트가 빅토르 폰 바이체커의 의학적 인간학의 영향을 수용하여 전통적인 영혼-육체 2분설이나 3분설을 거부하고, 인간을 '영혼이 몸을 통해 삶의 주체로 드러나는 불가분한 통일체'로 정의한 핵심 본문이다.

⁶⁰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2: *The Doctrine of Creation*, 318-324. 바르트가 창세기 1장 27절의 남녀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재적 능력이 아닌 '관계의 유비(analogia relationis)'로 해석해 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인간성의 절대적 기준으로 선포한 부분이다.

⁶¹ Thomas F. Torrance, *Divine and Contingent 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45-50. 무로부터의 창조에 기초한 우발적 합리성이 진화생물학이나 현대 우주물리학의 경험적 탐구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지 논증하며 바르트의 창조론을 전일적 과학신학으로 확장해 낸 심도 깊은 논의이다.

이로써 바르트는 근대 신학을 짓누르던 어설픈 변증학의 짐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진리 탐구의 최전선에 선 과학자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현대 과학신학의 튼튼한 건축적 뼈대를 완성해 낸 것이다.

B. 현상학·실존주의적 인간학 비판: 칼 야스퍼스와 막스 셸러

바르트의 이 철저한 '방법론적 청결주의(Methodological Hygiene)'는 단지 생물학적 진화론이나 기계론적 우주관과 같은 자연과학의 범주를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대의 인문학 및 철학적 인간학 전반으로 예리하게 확장된다. 헤겔의 생물학주의가 인간을 물질적 진화의 산물로 환원하려 했다면, 20세기 초반 독일 지성계를 주도했던 칼 야스퍼스(Karl Jaspers)의 실존주의나 막스 셸러(Max Scheler)의 현상학은 인간의 이성과 자율적 관찰만으로 인간의 궁극적 본질을 해명하려 시도했다.

막스 셸러는 우주적 생명력 안에서 인간 고유의 '정신(Geist)'을 직관하려 했고, 칼 야스퍼스는 인간 실존의 한계 상황 속에서 초월자를 향한 철학적 비약을 인간성의 본질로 규정했다.⁶² 그러나 바르트의 교의학적 렌즈로 볼 때, 이들의 시도 역시 자연이나 이성 안에서 독자적으로 신과 인간의 지식을 도출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펠라기우스적 '자연신학'이자 철학적 우상숭배에 불과했다.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 III/2(제43장 "교의학적 문제로서의 인간")에서 이들의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아무리 고도로 세련된 현상학이나 실존주의 철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스스로의 자율적 관찰과 이성에 의존하는 한, 그들이 포착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 인간(Phenomenal man)'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과 철학이 관찰하는 '현상적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파트너로서의 '실재적 인간(Real man)'의 비밀에 닿을 수 없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를 아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길은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즉 철저한 '기독교론적 집중(Christological Concentration)'뿐이다. 바르트에게 있어 참된 인간성(Imago Dei)은 생물학적 종(Homo sapiens)의 특징이나 철학적 사유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및 타인과 맺는 언약적 관계성(Analogia relationis) 안에서만 온전히 계시된다.⁶³

결과적으로 바르트의 이러한 철학적 인간학 비판은 신학과 세속 학문의 경계를 가장 완벽하게 구별해 낸 지성사적 쾌거이다. 바르트는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유래했다는 가설이나 뇌 신경망의 복잡성에 대해 신학은 분노할 필요가 없다"며 진화생물학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철학과 과학이 그 현상적 지식을 인간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궁극적 '본질'로 환원하여 형이상학적으로 단정하려 들 때 발생하는 월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바르트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현상'을 탐구하는 자율적 권리를 전폭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궁극적 '본질'은 오직 창조주의 계시를 통해서만 부여된다는 튼튼한 교의학적 성벽을 완성해 낸 것이다.⁶⁴

⁶²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2, *The Doctrine of Creation*, trans. G. W. Bromiley et al. (Edinburgh: T&T Clark, 1960), 109-115. 바르트는 이 대목에서 칼 야스퍼스와 막스 셸러의 철학적 인간학을 상세히 분석

하며, 이들의 실존적·현상학적 접근이 인간 내면의 자율성에 갇혀 결국 참된 창조주를 발견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철학적 자연신학의 전형임을 날카롭게 논박한다.

⁶³ Barth, *Church Dogmatics*, III/2, 132-135. 바르트는 "현상적 인간(Phenomenal man)"과 "실재적 인간(Real man)"을 엄격히 구분하며, 인간의 참된 본질은 관찰 가능한 현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적 파트너라는 기독교론적 사실에 의해서만 규명됨을 선언한다.

⁶⁴ Thomas F. Torrance, *Theologic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281-285. 토런스는 바르트가 진화생물학과 철학적 인간학 양자 모두에 대해 적용한 이 '방법론적 청결주의'가, 결국 신학과 세속 학문이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탐구 대상에 충실하면서 상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비판적 실재론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음을 입증한다.

C. 제3기(후반): 섭리론과 생명윤리 - 살아계신 통치와 '빌려주신 생명'(CD III/3-4)

바르트의 창조론(CD III/1-2)이 피조 세계 전체를 긍정하고 현대 자연과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존재론적 토대였다면, 섭리론(CD III/3)과 윤리학(CD III/4)은 그 창조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며, 그 안에서 인간의 '생명'이 어떠한 존엄을 지니는지를 치열하게 규명하는 실천적 전장이다. 특히 이 영역에서 바르트는 19세기의 기계론적 우주관과 20세기 초반 독일을 휩쓴 나치의 폭력적 우생학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우상들과 교의학적으로 정면 승부를 펼친다. 서론에서 제기했던 나치즘에 대한 저항 정신이 단순한 정치적 투쟁을 넘어 생명윤리의 거대한 신학적 토대로 어떻게 만개하는지, 그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기계론적 우주관과의 대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CD III/3)

근대 과학의 가장 강력한 철학적 전제는 우주를 마치 시계태엽처럼 물리적 인과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Machine)'로 간주하는 닫힌 우주관이었다.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 III/3 섭리론(제48장)과 무(Das Nichtige, 제50장)의 논의를 통해, 자연법칙을 절대 권력으로 격상시킨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철저히 해체한다.

1. 라이프니츠 비판 - 기계론적 낙관주의와 '무(Das Nichtige)'의 파괴력

바르트는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G. W. Leibniz)의 철학을 근대 자연신학적, 수학적 낙관주의의 표본으로 삼아 맹렬히 비판한다.⁶⁵ 라이프니츠는 우주의 조화와 인과적 합리성을 찬양하며 이 세계를 "가능한 최선의 세계"로 규정했다. 그러나 바르트가 보기에 이러한 기계론적 낙관주의는 질병, 재난, 죄악, 그리고 파괴적 폭력과 같은 우주의 실제적인 어둠, 즉 '무(Das Nichtige)'의 침연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볍게 여긴다.⁶⁶ 과학이나 수학적 기계론은 피조계를 위협하는 이 파괴적 허무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에서 허무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주의 참된 통치자이심을 바르트는 섭리론의 중심에 세운다.⁶⁷

2. 스피노자 비판 - 결정론적 범신론과 살아계신 인격(Living God)

나아가 바르트는 "하나님이 곧 자연이다(Deus sive Natura)"라고 선언한 바뤼흐 스피노자(B. Spinoza)의 결정론적 철학을 철저히 배격한다.⁶⁸ 하나님은 결코 자연법칙이라는 내재적 인과율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자연의 물리 법칙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창조주의 '지속적이고 신실한 통치의 한 표현'일 뿐이다. 바르트에게 창조주는 기계의 설계자로 물리나 있는 부동의 원동자가 아니라, 우주와 인격적으로 교류하시며 그 법칙들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인격(Living God)'이시다.⁶⁹

3. 소결: 닫힌 우주관의 해체와 섭리론적 개방성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로 대변되는 닫힌 인과율을 타파함으로써, 바르트는 자연과학이 우주의 기제를 탐구하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우주를 유물론적 결정론에 갇힌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적 통치와 은혜가 유입되

⁶⁵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3, *The Doctrine of Creation*, trans. G. W. Bromiley and R. J. Ehrlich (Edinburgh: T&T Clark, 1960), 304-306.

⁶⁶ Barth, *Church Dogmatics*, III/3, 293-295.

⁶⁷ *Ibid.*, 360-365.

⁶⁸ *Ibid.*, 141-143.

⁶⁹ *Ibid.*, 112-115.

는 '개방된 우주'로 해방시켰다.⁷⁰ 이는 동시대 물리학자 폰 바이츠제커가 닫힌 시계태엽 기계로서의 우주관을 해체하고, '자연은 진화해 가는 역사(History)를 갖는다'고 선언한 물리학적 성과와 정확히 교의학적 공명을 이루는 것이었다.⁷¹ 이는 훗날 토머스 F. 토런스(T. F. Torrance)가 현대 물리학의 우발적 개방성을 신학적으로 정초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의학적 활주로가 된다.⁷²

2) '빌려주신 생명(Lehen)'의 생명윤리 (CD III/4)

바르트 신학이 현대 생명윤리와 치유신학에 기여한 가장 심오한 변증학적 성취는 『교회 교의학』 III/4(제55장 "생명을 위한 자유")에 전개된 생명론에 집약되어 있다. 바르트는 생명의 가치를 당시 유행하던 자연신학이나 생물학적 환원주의에서 찾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Lehen, Loan)'이라는 철저한 기독교론적 명령의 토대 위에 올려놓는다.⁷³

1. 생기론적 자연신학 윤리 비판

바르트는 생명의 가치를 자연이나 관찰에서 도출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교의학적 위험으로 간주했다.⁷⁴

-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바르트는 슈바이처의 헌신적인 의료 실천을 깊이 존경했으나, 그의 '생명 외경(Ehrfurcht vor dem Leben)' 사상의 윤리적 토대만큼은 맹렬히 비판했다.⁷⁵ 슈바이처의 윤리는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맹목적 의지"라는 범신론적 생기론(Vitalism)과 자연 관찰에서 도출되었다.⁷⁶ 바르트는 투쟁과 죽음이 난무하는 모호한 자연계(생태계) 자체에서 윤리를 도출하려 할 경우, 자칫 힘의 논리를 긍정하는 사회진화론으로 타락하거나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혼동하는 윤리적 신비주의에 빠질 치명적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⁷⁷

- **니체와 쇼펜하우어 비판:** 동일한 맥락에서 생명을 '권력에의 의지(Wille zur Macht)'로 환원하여 강자의 억압을 정당화한 프리드리히 니체(F. Nietzsche)나, 생명을 맹목적 의지의 짐으로 보아 허무주의로 귀결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의 철학적 생기론 역시 철저히 배격된다.⁷⁸ 생명은 자연의 맹목적 힘이 아니라, 창조주가 인간에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위탁하신 거룩한 '시간적 공간'이기 때문이다.⁷⁹

⁷⁰ Thomas F. Torrance, *Divine and Contingent 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45-48.

⁷¹ Carl Friedrich von Weizsäcker, *Die Geschichte der Natu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48). 우주의 열역학적 팽창과 비가역적 역사를 입증한 바이츠제커의 통찰은, 우주를 폐쇄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개방적인 무대'로 규정한 바르트의 섭리론(CD III/3)에 가장 든든한 과학철학적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⁷² Torrance, *Theologic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108-112.

⁷³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4, *The Doctrine of Creation*, trans. A. T. Mackay et al. (Edinburgh: T&T Clark, 1961), 324-326.

⁷⁴ Barth, *Church Dogmatics*, III/4, 327.

⁷⁵ *Ibid.*, 327-328.

⁷⁶ Albert Schweitzer, *The Philosophy of Civilization*, trans. C. T. Campion (New York: Macmillan, 1949), 307-311.

⁷⁷ Barth, *Church Dogmatics*, III/4, 329-331.

⁷⁸ *Ibid.*, 333-335.

⁷⁹ *Ibid.*, 337-338.

2. 우생학적 오만에 대한 교의학적 철퇴 (빈딩과 호헤 비판)

바르트가 자연계시를 부정하며 생명을 오직 '빌려주신 은혜'로 정의했던 가장 절박한 시대적 이유는 1920-30년대 나치 독일을 지배했던 끔찍한 우생학적 살육 때문이었다.⁸⁰ 바르트의 가장 강력한 비판의 표적은, 중증 장애인이나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생물학적·경제적 효용성으로 평가하여 '살 가치가 없는 생명(lebensunwertes Leben)'으로 낙인찍고 의학적 안락사를 정당화한 칼 빈딩(Karl Binding)과 알프레트 호헤(Alfred Hoche)의 저작이었다.⁸¹

생명이 날 때부터 쥐고 태어나는 소유(Possession)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하신 자본(Loan)이라는 사실은, 그 생명에 대한 처분권(죽일 권리, 포기할 권리)이 차용자인 인간(과학자나 의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원소유주이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의미한다.⁸² 따라서 인간의 유용성(Utility)을 잣대로 타인의 생명을 평가하고 처분하려는 우생학적 시도는 과학의 껍질을 쓴 살인이자, 창조주의 주권을 찬탈하는 가장 끔찍한 신성모독이다.⁸³

3. 현대 의학의 신학적 재정초

바르트는 이처럼 세속화된 생물학주의는 맹비판했지만, 르네상스의 위대한 의학자 파라셀수스(Paracelsus)의 정신을 긍정하며 현대 의학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 칭송했다.⁸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이 맡기신 대여물'이라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그 생명을 방어하고 연장하려는 현대 의학과 치유 행위는 단순한 인도주의를 넘어 "창조주의 명령에 대한 거룩한 순종이자 청지기적 사역"으로 격상된다.⁸⁵ 과학과 의학은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겸손한 봉사자'로 그 존엄한 자리를 확립하게 된다.⁸⁶

4. 소결: 환원주의 폭력에 맞선 실천적 생명윤리

자연신학의 맹렬한 부정과 기독교적 집중이라는 바르트의 인식론적 결단은 결코 사변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과학과 의학의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수치화하고 도구화하려는 현대 문명의 환원주의적 폭력을 교의학적으로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가장 철저한 신학적 구출 작전이었다.⁸⁷

D. 『하나님의 인간성』(1956)과 존재론적 경첩(Hinge)

1956년에 발표된 바르트의 강연이자 저서인 『하나님의 인간성(Die Menschlichkeit Gottes)』은 그의 신학적 궤적이 초기의 단절을 넘어 자연과 우주를 포용하는 '과학신학(Theology of Nature)'으로 만개하게 된 가장 결정적이고 심오한 존재론적 경첩(Hinge)이다. 초기 바르트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시대의 우상숭배를 타파

⁸⁰ Arthur C. Cochrane, *The Church's Confession Under Hitle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74-79.

⁸¹ Karl Binding and Alfred Hoche, *Die Freigabe der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Ihr Maß und ihre Form* (Leipzig: Felix Meiner, 1920), 10-15; Barth, *Church Dogmatics*, III/4, 401-403.

⁸² Barth, *Church Dogmatics*, III/4, 398-400.

⁸³ *Ibid.*, 405-408.

⁸⁴ *Ibid.*, 361-364.

⁸⁵ *Ibid.*, 358-360.

⁸⁶ *Ibid.*, 368-372.

⁸⁷ Christian Link, *Schöpfung: Schöpfungstheologie angesichts der Herausforderungen des 20. Jahrhundert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1), 463-471.

하기 위해 쇠렌 키르케고르(S. Kierkegaard)의 개념을 빌려 하나님을 철저히 '전적으로 타자이신 분(The Wholly Other)'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성』에서 바르트는 그 극단적인 단절의 파토스가 과거의 위기 상황 속에서 복음의 객관성을 사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시대적 강조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것이 복음의 온전한 전부는 아니었음을 겸허히 교정한다. 바르트가 새롭게 천명한 하나님의 참된 신성(Deity)은 저 멀리 하늘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차갑고 추상적인 절대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신성은 기꺼이 피조물을 향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인간과 함께하시는 '임마누엘(함께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인간성(Humanity)' 안에 역설적으로 가장 충만하게 계시된다.⁸⁸

이러한 기독교적 전환은 필연적으로 물질세계 전체를 향한 거대한 존재론적 긍정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이 되었다는 성육신(Incarnation)의 신비는,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피와 살이라는 '물질(Matter)'과 십자가라는 '역사적 실재', 그리고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 안으로 기꺼이 뚫고 들어오셨음을 의미한다. 이는 물질을 악하거나 열등한 껍데기로 취급하던 모든 헬라적 이원론과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신학의 토대에서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대 사건이다. 토머스 F. 토런스(T. F. Torrance)가 탁월하게 통찰했듯, 성육신은 하나님이 시공간 연속체(Space-Time continuum) 바깥에 머무는 부동의 원동자(Unmoved Mover)가 아니라, 피조 세계의 역동적인 물리적 구조 안으로 들어오셔서 물질과 융합하시고 이를 구속하시는 분임을 확증한다.⁸⁹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우주라는 무대와 생명체의 육체, 미시적인 유전자(DNA) 구조와 뇌 신경망의 시냅스는 구원과 무관하게 폐기되어야 할 무가치한 질료가 아니다. 그것은 창조주께서 친히 연합하시고 지극한 관심을 두시며 거룩하게 구속하신 숭고한 대상이다. 바르트의 이 거대한 '긍정'은 물질 자체가 신성하다는 범신론적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과 연약적 화해의 대상이 되었음을 교의학적으로 확증함으로써 피조계 전체에 새로운 존재론적 위엄을 부여한다.⁹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간성』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태도가 철저한 거부와 심판("No")이 아니라 전적인 긍정과 사랑("Yes")임을 우주적으로 선포한 위대한 선언장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와 물질 세계를 긍정하셨으므로, 신학 역시 현대 자연과학이 밝혀내는 우주의 물리적 기제와 생명의 진화 과정들을 두려움이나 적대감 없이 기쁨으로 포용할 수 있는 엄청난 해석학적 여유를 획득하게 되었다. 초기의 전투적이고 방어적인 성벽 수비수였던 신학자들은 이제 물리학자의 실험실과 천문학자의 우주 관측 결과들을 편안하고도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모든 정밀한 물리적 현상의 심연에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God for us)'의 로고스적 합리성이 맥박 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르트의 이 눈부신 존재론적 경첩을 통과

⁸⁸ Karl Barth, *The Humanity of God*, trans. John Newton Thomas and Thomas Wieser (Richmond: John Knox Press, 1960), 37-45. 바르트가 초기 위기 신학에서 전적으로 타자이신 분을 강조했던 것이 시대적 위기 속의 불가피성이었음을 솔직하게 회고하며 참된 신성은 하늘에 고립된 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통한 인간성 안에서 발견됨을 교의학적으로 선언하는 본문이다.

⁸⁹ Thomas F. Torrance, *Space, Time and Incar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65-72. 토머스 토런스가 성육신 사건이 헬라적 이원론의 텅 빈 공간 개념을 붕괴시키고 창조주가 피조 세계의 관계적 시공간 연속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물질세계를 구속하셨음을 아인슈타인의 물리학과 연결하여 논증하는 심층적 문헌이다.

⁹⁰ 정승훈, *op.cit.*, 458-470. 바르트의 성육신 이해가 물질세계 전체에 대한 신학적 승인으로 이어져 어떻게 동시대 자연과학과의 긍정적인 대화를 촉발하는 존재론적 경첩으로 작용했는가를 동시대적 관점에서 정밀하게 해명하는 자료이다.

하며, 신학은 마침내 세속 학문 속에 흡수려진 '작은 빛들'을 끌어안는 통합과 수렴의 과학신학으로 비상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⁹¹

V. 제4기: 기독교적 우주론의 만개와 '빛들의 교리(Lichterlehre)' (1950년대)

A. 『교회 교의학 IV/3.1』과 중보자의 영광

1950년대 후반, 바르트 신학의 황혼기에 집필된 화해론, 특히 『교회 교의학(Kirchliche Dogmatik)』 제4권 3부 1책(IV/3.1) 제69항 "중보자의 영광(The Glory of the Mediator)"에 이르러 그의 사상은 '빛들의 교리(Lichterlehre)'를 통해 가장 경이롭고 눈부신 우주적 만개를 이룬다. 위기 신학 시대에 높게 쌓아 올렸던 인식론적 성벽 안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기독교적 중심이 견고해지자, 바르트는 비로소 성벽의 창문을 활짝 열고 온 우주를 향해 그 빛을 발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우주적 만개의 중심에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참된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리 잡고 있다. 초기에 에밀 브루너를 향해 "아니오!"를 외치며 사수했던 기독교적 절대성은 여기서 결코 약화되거나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다. 바르트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생명의 빛을 인용하며, 우주 만물에 빛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유의 주(Pantokrator)이신 절대적 태양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언한다.⁹²

그러나 여기서 바르트는 과거의 배타적 방어선을 넘어 위대한 신학적 도약을 이룬다. 세상은 타락하고 붕괴되었지만 결코 완전한 철학의 어둠일 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친히 만드신 선한 세계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화해된(reconciled) 실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고 통일되었기에, 교회 밖의 세속 영역과 피조 세계라는 광대한 극장 곳곳에는 중보자의 영광(Glory)이 흘러넘쳐 찬란하게 반사되고 있다.

바르트는 세상 속에서 발산되는 이 무수한 반사체들을 '작은 빛들(kleinere Lichter)'과 '참된 말들(wahre Worte)'이라고 명명한다. 이 선언은 현대 교회를 향한 거대한 인식론적 해방이자 해석학적 도전이다. 세속의 역사와 예술, 철학의 깊은 성찰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경이로운 탐구 결과물들이 모두 이 작은 빛들의 범주에 포함된다. 현대 유전학이 밝혀낸 디엔에이(DNA) 이중나선 구조의 정밀함, 우주의 팽창과 기원을 수학적으로 해명하는 프리드만 방정식(Friedmann equations), 그리고 대뇌 기저부의 윌리스 동맥륜(Circle of Willis)과 천억 개의 시냅스(synapse)가 빚어내는 복잡한 신경망의 신비는 무의미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태초의 말

⁹¹ Christian Link, *Die Welt als Gleichnis: Studien zum Problem der natürlichen The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6), 286-312. 크리스찬 링크가 바르트의 하나님의 인간성 선언을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긍정으로 해석하며 자연과 과학의 성취가 은총의 무대에서 어떠한 신학적 존엄성을 획득하게 되는지를 비유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통찰한 부분이다.

⁹²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V, part 3.1,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trans. G. W. Bromiley (Edinburgh: T&T Clark, 1961), 86-90. 바르트가 중보자의 영광 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 세계를 비추는 유일한 태양으로 선언하고 우주의 모든 긍정적인 실재들이 스스로 발광하지 못하고 오직 그 빛의 지배와 반사 아래 있음을 교의학적으로 확립하는 부분이다.

씀이신 로고스(Logos)의 우주적 합리성이 피조 세계의 물리적, 생물학적 구조 안에 강력하게 메아리치며 발산하는 경이로운 '작은 빛들'이다.⁹³

나아가 바르트는 무신론 과학자의 입술과 세속 문학을 통해서도 이 절대적 태양 빛을 반사하는 '참된 말들'이 선포될 수 있다고 기쁨으로 확인한다. 자연과학이 해명해 내는 우주의 미세조정과 진화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합리성을 경외함으로 가리키는 객관적인 진술이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적대시하거나 진리 탐구의 최전선에 선 세속 과학을 멸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성벽 밖에서 빛나는 모든 참된 성취들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반사된 작은 빛들로 인정하고, 두려움 없이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경청하는 예언자적 여유와 융합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⁹⁴ 이 빛들의 교리를 통해 바르트는 과학과 문화의 언어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면서도 궁극적인 척도를 복음에 두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위한 가장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과학신학의 대성당을 완성해 낸 것이다.⁹⁵

B. 하향식(Top-Down) 자연의 신학과 세속의 비유

바르트의 '빛들의 교리(Lichterlehre)'가 현대 신학사에서 지니는 가장 위대한 공헌은, 계시의 객관성을 철저히 수호하면서도 피조 세계 전체를 거룩한 텍스트로 다시 읽어내는 거대한 해석학적 전복을 이룩했다는 데 있다. 이는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나 자연의 질서(아래)에서 출발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전통적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의 펠라기우스적 교만을 완전히 붕괴시킨 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로부터의 절대적 빛(Top-Down) 안에서 자연과 과학을 재해석해 낸 인식론적 역전이다.⁹⁶ 칼 하임(K. Heim)이나 알리스터 맥그래스(A. E. McGrath)가 현대 과학신학의 지평을 넓히며 지적하듯, 우주물리학이나 생물학적 관찰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원의 지식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말씀에 사로잡힌 지성은 비로소 세계를 기계적인 원자들의 맹목적 집합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파편화된 해체물로 보지 않고, 창조주의 합리성이 충만하게 맥박 치는 다차원적 실재로 꿰뚫어 보게 된다.⁹⁷

⁹³ Francis S. Collins, *The Language of God: A Scientist Presents Evidence for Belief* (New York: Free Press, 2006), 100-107. 현대 유전학의 선구자인 프랜시스 콜린스가 유전자의 정교한 암호 체계 속에서 창조주의 지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를 발견하며 감격하는 본문으로 이는 바르트가 명명한 피조계의 로고스적 합리성이 뿜어내는 작은 빛들을 자연과학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탁월한 연결점이다.

⁹⁴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V, 113-118. 타락한 세상이 결코 완전한 칠흑의 어둠이 아니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피조 세계 곳곳에서 발산되는 작은 빛들과 세속의 참된 말들이 지니는 존재론적 근거와 이를 교회가 어떻게 기쁨으로 경청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논변이다.

⁹⁵ 정승훈, *op.cit.*, 420-438. 바르트의 빛들의 교리가 어떻게 현대 교회로 하여금 폐쇄적인 계토를 벗어나 현대 과학과 인문학의 성취를 복음의 언어로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동시대적이고 해석학적인 개방성을 열어주는지를 상세히 분석하고 도전하는 자료이다.

⁹⁶ Thomas F. Torrance, *Reality and Scientific Theology*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5), 38-42. 토머스 토런스가 바르트의 신학적 방법론을 분석하며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하는 전통적 자연신학의 상향식 구조와 위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에 철저히 종속되는 하향식 과학신학 사이의 질적이고 인식론적인 차이를 정밀하게 규명하는 핵심 문헌이다.

⁹⁷ Karl Heim, *Christian Faith and Natural Scienc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3), 35-40. 칼 하임이 현대 물리학의 다차원적 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적 세계관과 기독교 신앙이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주의 정교한 구조가 하나님의 초월적 실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틀이 될 수 있음을 변증한 자료로 바르트의 세속의 비유 개념을 우주물리적으로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러한 바르트의 하향식 인식론은 존 칼뱅(J. Calvin)의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 교리나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헤르만 바빙크(H. Bavinck)로 이어지는 네덜란드 개혁신학의 '일반 은총(Common Grace)' 개념과 외견상 매우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 듯 보인다. 창조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새겨져 있으며, 세속 학문의 성취 속에서도 진리의 파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는 분명 개혁파 교의학의 웅장한 유산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철저한 '기독론적 통제(Christological Control)'라는 교의학적 장치를 통해 이들과 매우 결정적인 인식론적 분기점을 확립한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전통이 타락 이후에도 피조계 안이나 인간의 이성 속에 일반 은총의 파편들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남아있어 자연 계시의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면, 바르트는 이러한 독자적 계시의 여지를 완벽히 차단한다.⁹⁸

바르트는 자연이나 인간의 이성 안에 계시를 독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론적 흔적도 본성적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확언했다. 세상의 문학, 역사, 환경 생태계의 유기적 생명망에서 발견되는 지혜는 그 자체로 신성을 띠는 독립적인 '자연 계시'가 아니다. 이 모든 피조계의 합리성과 경이로움은 결코 스스로 진리를 발산할 수 없으며, 오직 성육신하신 '말씀(로고스)'의 빛이 수직적으로 비취질 때, 그리고 성령의 주관적인 조명(Illumination)이라는 철저한 기독론적 통제 아래 놓일 때에만 비로소 그 의미를 획득한다. 원어의 심연을 파고들어 텍스트의 숨겨진 구조를 번역해 내듯,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은 신앙의 눈(Analogia Fidei)으로 피조계를 정밀하게 해독할 때에만 비로소 그 모든 징후들이 태양(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세속의 비유(Säkulare Gleichnisse)'이자 참된 말들(Wahre Worte)로 인식되는 것이다.⁹⁹

크리스찬 링크(C. Link)가 자신의 비유 해석학을 통해 탁월하게 분석하였듯, 바르트가 명명한 이 '세속의 비유'는 현대의 과학적 발견과 영성신학적 실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교의학적 고리가 된다. 현대 물리학이 탐구하는 우주의 미세조정(Fine-tuning), 프랜시스 S. 콜린스(F. S. Collins)를 비롯한 생물학자들이 경탄해 마지않는 디엔에이(DNA)의 정교한 언어 체계는 단순한 무신론적 진화의 맹목적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라는 장대한 무대 위에서 창조주의 신실하심과 연약적 목적을 극적으로 예표하고 상연하는 눈부신 비유(Gleichnis)이다.¹⁰⁰

나아가 이 세속의 비유 개념은 오늘날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의 도전 앞에 서 있는 현대 교회에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간의 몸과 뇌 신경망, 상처 입은 생태계의 질서를 복원하려는 깊은 영성신학적 치유 사역은 단지 세속적인 의료 기술이나 윤리적 캠페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주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성육신하시고 긍정하신 물질세계의 '비유적 존엄성'을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돌리는 가장 거룩하고 예언자적인 실천이 된다. 바르트는 이처럼 기독론적 집중이라는 가장 좁고 치열

⁹⁸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304-308. 헤르만 바빙크가 타락한 피조 세계 안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종교의 씨앗이 남아 있음을 논증하며 자연의 합리성을 변증하는 대목으로 바르트의 철저한 기독론적 통제와 개혁파 전통의 유기적 세계관 사이의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인식론적 분기점을 대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⁹⁹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V, part 3.1,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trans. G. W. Bromiley (Edinburgh: T&T Clark, 1961), 114-118. 바르트가 세속의 문학 철학 자연과학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의 단편들을 단순한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세속의 비유로 명명하며 교회의 해석학적 수용을 촉구하는 교의학적 본문이다.

¹⁰⁰ Francis S. Collins, *op.cit.*, 100-105. 생물학자 프랜시스 콜린스가 생명체의 디엔에이 염기서열 안에서 창조주의 지적이고 언어적인 합리성을 발견하는 대목으로 바르트가 말한 피조 세계의 비유적 성격이 실제 현대 유전학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경이로운 참된 말들로 해독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참고 문헌이다.

한 문을 통과함으로써, 중국에는 미시적 시냅스부터 거시적 우주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를 성령의 감동 안에 거룩한 텍스트로 읽어내는 장엄한 자연의 신학을 우리 앞에 완성해 낸 것이다.¹⁰¹

VI. 칼 바르트 과학신학의 계승과 현대적 대수렴

흔한 오해와 달리, 바르트는 자연과학에 무관심한 폐쇄적인 계시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19세기 뉴턴적 기계론의 닫힌 세계관이 붕괴하고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이 등장하는 20세기 물리학의 혁명을 지켜보며 양자물리학, 생물학, 우주론 문헌을 꾸준히 탐독했다.¹⁰² 특히 그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제커(Carl Friedrich von Weizsäcker) 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과 학제간 교류를 이어갔다. 크리스찬 링크(C. Link)가 정밀하게 분석하듯, 바르트가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과학주의'의 한계를 설정할 때 가장 강력한 물리학적·철학적 알리바이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바이츠제커였다.¹⁰³

첫째, 바르트는 바이츠제커의 저작 『물리학의 세계상(Zum Weltbild der Physik)』(1943)을 통해, 과학이 자연의 구조적 과정(how)은 설명하지만 우주의 궁극적 기원이나 목적(why)은 해명할 수 없다는 물리학 내부의 인식론적 겸손을 확인했다.¹⁰⁴ 이는 바르트의 '방법론적 청결주의'에 완벽한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신학이 과학의 미지 영역에 신을 끼워 넣는 어설픈 '틈새의 하나님(God of the gaps)'을 원천 폐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둘째, 바이츠제커가 괴팅엔 강의를 엮어 출간한 『자연의 역사(Die Geschichte der Natur)』(1948)는, 우주가 뉴턴 식의 영원히 순환하는 닫힌 기계가 아니라 열역학 제2법칙을 따르는 '비가역적 역사를 지닌 개방적 실재'임을 실증했다.¹⁰⁵ 우주가 닫힌 체계가 아니라는 이 물리학적 통찰은, 우주를 창조주가 개입하시는 '역동적이고 언약적인 무대'로 규정한 바르트의 창조론 및 섭리론과 완벽하게 공명했다.

나아가 두 거장의 이 깊은 인식론적 교감은 1957년 서독 과학자들의 '괴팅엔 18인 선언(핵무장 반대)' 당시, 바르트가 핵무기를 창조계를 훼손하는 '허무(Das Nichtige)'의 가장 악마적인 발현으로 규정하며 생명 수호의

¹⁰¹ Christian Link, *Die Welt als Gleichnis: Studien zum Problem der natürlichen The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6), 286-312. 크리스찬 링크가 바르트의 빛들의 교리를 생태학과 현대 과학 문명에 접목하여 피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해석학적 비유이자 거룩한 텍스트로 읽혀야 함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¹⁰² George Hunsinger, *Disruptive Grace: Studies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0), 226-228. 조지 헌싱어가 바르트의 신학적 궤적을 재평가하며, 바르트가 과학주의적 우상숭배는 맹렬히 배격했으나 20세기의 진정한 자연과학(물리학, 우주론)의 자율성은 전폭적으로 존중하고 대화의 길을 열어두었음을 통찰력 있게 분석한 자료이다.

¹⁰³ Christian Link, *Schöpfung: Schöpfungstheologie angesichts der Herausforderungen des 20. Jahrhunderts (Band 7/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1), 180-188. 크리스찬 링크는 이 대목에서 바이츠제커의 양자역학적 철학이 바르트의 신학적 사유, 특히 기계론적 우주관 해체와 어떻게 상보적으로 결합하여 현대 과학신학의 토대를 형성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¹⁰⁴ Carl Friedrich von Weizsäcker, *Zum Weltbild der Physik* (Leipzig: S. Hirzel, 1943), 35-42. 바이츠제커는 물리학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형이상학적 세계관(Weltanschauung)이 될 수 없음을 논증했다. 디트리히 본회퍼 역시 옥중 서신에서 이 책을 읽고 "틈새의 하나님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바르트의 자연신학 비판을 완성한 바 있다.

¹⁰⁵ Carl Friedrich von Weizsäcker, *Die Geschichte der Natu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48), 12-18, 60-65. 우주를 정태적 기계가 아닌 진화적 역사를 지닌 개방적 체계로 규정한 기념비적 문헌으로, 바르트의 섭리론이 물리학적 지지를 얻게 되는 핵심 전거이다.

예언자적 연대로 대수렴하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¹⁰⁶ 바르트는 현대 물리학이 과거의 오만한 과학주의의 한계를 과학 스스로 폭로하는 현상으로 이해했으며, 과학은 세계가 '어떻게(how)'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신학은 '왜(why)' 존재하며 '누구(who)'인지를 묻는다는 상보적 관계를 명확히 했다.¹⁰⁷ 바르트가 확립한 이러한 자연과학과의 대화 경로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 본격적인 과학신학으로 만개하게 된다.

A. 토머스 F. 토런스(T. F. Torrance): 인식론적 동형성과 우발적 합리성

바르트가 이룩한 '독자적 학문(Wissenschaft)으로서의 신학'이라는 견고한 인식론적 성채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과학신학자 토머스 F. 토런스(Thomas F. Torrance)의 사상 속에서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현대 우주물리학과 경이로운 존재론적 융합을 이루어낸다. 토런스는 바르트가 교의학의 영역에서 성취한 '대상의 고유성에 철저히 종속되는 학문론'이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에서 이룩한 방법론적 혁명과 완벽하게 동형적(Isomorphic)인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통찰해 냈다.¹⁰⁸

아인슈타인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뉴턴(Isaac Newton) 물리학의 선형적 전제들을 과감히 버리고, 우주라는 물리적 대상 자체가 보여주는 현실(빛의 속도 불변)에 자신의 탐구 방법론을 철저히 일치시켰다. 토런스는 바르트 역시 칸트(I. Kant)의 선형적 범주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 중심적 틀에 억지로 얽매이지 않고, 오직 '계시된 하나님(말씀)'이라는 탐구 대상의 본성에 인식론을 철저히 복종시켰음에 주목했다. 토런스는 인간의 주관적 사변을 배제하고 오직 탐구 대상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에 지성을 복종시키는 이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의 태도를 초기 그리스 교부들의 용어인 '대상의 본성에 따르는 앎(Kata Physin)'으로 명명했다. 이로써 과학과 신학은 적대적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인간의 주관주의를 극복하여 진정한 객관성을 회복한 자매 학문으로 격상된다.¹⁰⁹

나아가 토런스는 현대 경험과학이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깊은 존재론적 토대를 바르트 창조론의 핵심인 '우발적 합리성(Contingent Rationality)'에서 도출해 낸다. 우발성(Contingency)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자유 안에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Creatio ex nihilo)하셨으므로, 이 우주가 필연적으로 지금의 모습이어야 할 어떠한 내재적 이유도 없음을 뜻한다. 우주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발적이기에, 인간은 선형

¹⁰⁶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3: The Doctrine of Creation*, trans. G. W. Bromiley and R. J. Ehrlich (Edinburgh: T&T Clark, 1960), 302-306. 참조: Eberhard Busch, *Karl Barth: His Life from Letters and Autobiographical Text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435-440. 하이젠베르크와 바이츠제커 주도의 괴팅엔 18인 선언과 맞물려, 바르트가 핵무기를 섭리론의 대적점인 '무(Das Nichtige)'로 맹비판하며 과학자와 신학자가 윤리적으로 연대했던 역사적 정황을 보여준다.

¹⁰⁷ Christian Link, *Schöpfung: Schöpfungstheologie angesichts der Herausforderungen des 20. Jahrhundert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1), 180-188. 크리스찬 링크가 바르트와 하이젠베르크, 폰 바이츠제커로 이어지는 지적 교류를 조명하며, 바르트가 경험과학(어떻게)과 신학(왜, 누구)의 영역을 정밀하게 구분함으로써 두 학문 간의 상호 존중과 대화의 토대를 확립했음을 논증한 문헌이다.

¹⁰⁸ Thomas F. Torrance, *Theologic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10-15. 토머스 토런스가 바르트의 교의학적 방법론이 지니는 학문적 엄밀성을 규명하고 탐구 대상의 고유한 본성이 연구 방법론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리가 아인슈타인의 비판적 실재론과 어떻게 정확히 동형적인 인식론적 구조를 지니는지를 치밀하게 논증하는 핵심 문헌이다.

¹⁰⁹ Alister E. McGrath, *A Scientific Theology, Vol. 2: Realit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221-227.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토런스의 인식론적 동형성 개념을 이어받아 바르트가 자연신학을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도달한 계시의 객관성이 근대 주관주의 철학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과학신학적 실재론으로 기능함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적인 이성적 사변만으로 우주의 물리 법칙을 연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밖으로 나가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적으로 실험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경험과학의 신학적 정당성이다. 동시에 이 우발적인 세계는 맹목적인 카오스(Chaos)가 아니다. 우주는 태초의 말씀이신 창조주의 로고스(Logos)에 의해 지음 받았기에 인간의 수학과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고도의 합리적(Rational) 질서를 띤다.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아인슈타인의 깊은 경탄에 대해, 토런스는 그 정교한 수학적 질서가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로고스가 피조 세계에 남긴 거룩한 흔적이라는 심오한 신학적 해답을 제시한다.¹¹⁰

이러한 토런스의 우주론적 사유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고전 역학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육신(Incarnation)의 물리학'이라는 가슴 벅찬 동시대적 성취로 심화된다. 이 과정에서 토런스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적 우주관을 기독교의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 교리로 논파하여 '우발적 합리성'과 '관계적 시공간'의 고대적 원형을 제시했던 6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과학철학자 요하네스 필로포누스(Johannes Philoponus)의 통찰과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을 정교하게 연결해 낸다.¹¹¹ 토런스는 우주를 텅 빈 상자(Container)로 보았던 뉴턴의 이원론적 우주관이 결국 하나님을 우주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신론적 기계주의를 낳았다고 예리하게 비판했다. 반면 물질과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휘어지는 아인슈타인의 관계적 시공간(Relational Space-Time) 개념은, 창조주가 피조 세계의 물리적 차원 안으로 친히 뚫고 들어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물리적 언어로 담아내기에 가장 완벽한 그릇이 된다고 환호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시공간 바깥에 머무는 부동의 원동자(Unmoved Mover)가 아니라, 우주의 물리적 시공간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물질과 깊이 교감하시고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론적으로 갱신하시는 역동적 실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¹¹² 토런스는 이 웅장한 우주론을 전개함에 있어 바르트의 기독교론적 공식인 '비자립성(Anhypostasis)'과 '내자립성(Enhypostasis, 혹은 안에-자립성)'을 물리적 우주로 번역해 내는 독창성을 보여준다. 즉, 예수의 인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듯 우주 역시 철저히 우발적이기에 스스로를 해명할 궁극적 원리를 내부에 지니지 못하며(Anhypostasis), 예수의 인간성이 로고스 안에서 참된 실재가 되듯 우주의 물리적 질서 역시 창조주 로고스에 의존할 때에만 그 합리성의 의미를 지닌다(Enhypostasis)는 것이다.

물론 바르트의 엄격한 기독교론적 통제(anhypostasis/enhypostasis)를 보편적 물질세계로 유추하여 확장한 토런스의 시도는 바르트 본인의 교의학적 경계선을 일정 부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바르트는 방법론적 청결주의를 고수하며 신학적 언어가 물리적 세계관과 직접 혼합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런

¹¹⁰ Thomas F. Torrance, *Divine and Contingent 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32-40. 고대 교부들과 개혁주의 신학의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에 내재된 우발성 개념을 현대 경험과학의 필수적인 존재론적 토대로 확립하고 창조주의 로고스에 기인한 피조 세계의 합리성이 우주의 신비를 수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근본 원인임을 밝혀낸 문헌이다.

¹¹¹ 토머스 토런스가 요하네스 필로포누스의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와 아리스토텔레스 이원론 타파를 현대 물리학(아인슈타인)의 비판적 실재론 및 관계적 시공간과 연결하는 과학철학적 논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Thomas F. Torrance, *Theological and Natural Science*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2), 14-22; 70-75. (OCLC Number: 50478168)

¹¹² Thomas F. Torrance, *Space, Time and Incar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65-72. 뉴턴의 절대 시공간 개념이 낳은 이원론적 이신론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아인슈타인의 관계적 시공간 연속체 개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물리적 우주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성육신의 신학적 역동성을 현대 물리학의 언어로 어떻게 가장 탁월하게 담아낼 수 있는가를 논변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스의 이러한 확장은 피조계가 독자적 신성을 지닌다는 자연신학적 퇴행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로고스의 합리성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낸 인식론적 승화이자 창조적 계승으로 보아야 한다.¹¹³

마지막으로 토런스는 이 차가운 과학기술의 시대에 신앙이 지니는 인식론적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과학철학자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의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 개념을 바르트의 신학 방법론과 눈부시게 융합해 낸다. 폴라니에 따르면,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이룩하는 탐구자는 관찰 대상과 철저히 분리된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자연의 합리성을 향해 자신의 확고한 신뢰를 투신하는 '인격적 주체'이다. 자연의 숨겨진 합리성에 대한 과학자의 인격적 헌신(Commitment)을 통해 과학적 진리가 발견되듯, 참된 신학적 앎(신앙) 역시 단순한 감정적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합리성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앞에 신학자가 자신의 전 인격을 던져 헌신할 때 발생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이다.¹¹⁴ 이로써 과학과 신학은 탐구 대상의 합리성을 향한 경외와 인격적 헌신이라는 동일한 인식론적 구조를 공유하게 되며, 차가운 실증주의와 기술 만능주의로 인해 파편화된 현대인들에게 로고스와 인격이 만나는 거대한 과학신학적 교향곡을 선사하게 된 것이다.

B. 크리스찬 링크(Christian Link): 창조신학과 비유의 해석학

독일의 저명한 개혁파 조직신학자 크리스찬 링크(Christian Link)는 바르트의 창조론과 '빛들의 교리(Lichterlehre)'를 현대 자연과학 및 생태학적 위기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꽃피운 학자이다. 링크는 1976년의 저작인 『비유로서의 세계(Die Welt als Gleichnis)』를 통해, 바르트가 초기에 맹렬히 거부했던 펠라기우스적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이 결코 피조 세계에 대한 도피나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를 넉넉히 품어내는 웅장한 '자연의 신학(Theology of Nature)'으로 교의학적 승화를 이루었음을 명징하게 입증해 낸다. 피조계는 그 자체로 신성을 띠는 범신론적 실재가 아니지만,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 빛을 조명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로고스적 합리성을 응변하는 거룩한 '세속의 비유(Säkulare Gleichnisse)'로 탈바꿈한다.¹¹⁵

¹¹³ 물론, 바르트의 엄격한 기독교적 통제(안히포스타시스/엔히포스타시스)를 물리적 우주론의 구조로 유추하여 확장한 토런스의 시도는 학계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크리스찬 링크 등 독일의 해석학파나 브루스 맥코맥(Bruce McCormack)을 위시한 미국의 수정주의 학자들은, 토런스의 객관주의적 실재론이 자칫 바르트의 철저한 '사건(Aktualismus)' 중심적 변증법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은총의 '사건(Event)'을 우주 안에 내재된 정적인 '구조(Structure)'로 전락시켜 물리적 구조에 신학적 의미를 덧입히는 새로운 자연신학으로 기우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토런스의 이러한 확장은 피조계에 독자적 신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주의 합리성조차 전적으로 창조주 로고스에 의존할 때에만(enhypostatic) 해명된다는 바르트의 신학적 동기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가장 창조적으로 '번역'하고 계승한 위대한 성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수정주의적 바르트 해석과 사건 중심적 존재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ruce L. McCormack, *Orthodox and Modern: Studies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21-27; 크리스찬 링크의 비유 해석학적 관점에 대해서는 Christian Link, *Die Welt als Gleichnis: Studien zum Problem der natürlichen The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6), 286-290.

¹¹⁴ Michael Polanyi,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300-305. 마이클 폴라니가 근대의 실증주의적 객관주의의 허상을 비판하며 모든 참된 과학적 지식의 기저에는 대상의 합리성에 대한 탐구자의 인격적 헌신과 신뢰가 전제되어 있음을 해명한 철학적 텍스트이며 토런스가 이를 신학적 신앙의 인식 구조와 매칭시키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다.

¹¹⁵ Christian Link, *Die Welt als Gleichnis: Studien zum Problem der natürlichen The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6), 112-115. 크리스찬 링크가 바르트의 빛들의 교리를 바탕으로 타락한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해석학적 비유로 승화될 수 있는가를 논증한 핵심 문헌이다.

이러한 링크의 '비유의 해석학'은 우주론과 생물학이 밝혀낸 현대 과학의 경이로운 물리적 질서를 대하는 현대 교회의 인식론적 지평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다. 현대 우주물리학이 직면한 대우주의 미세조정(Fine-tuning)이나, 생명 탄생과 유전 물질이 보여주는 정교한 진화적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 영혼을 구원하는 독자적인 복음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신앙의 유비(Analogia Fidei)'를 통해 이 현상들을 해독할 때,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관찰되는 이 '작은 빛들'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우주적 지혜를 가리키는 웅장한 은총의 텍스트로 읽히게 된다. 장 칼뱅(J. Calvin)이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 상연되는 극장(theatrum gloriae Dei)'이라 칭송했던 개혁파 교의학의 장엄한 유산은, 이제 링크의 해석학을 거치며 양자역학과 진화생물학의 언어를 입고 동시대의 과학적 실재 안에서 눈부신 비유로 부활하는 것이다.¹¹⁶ 결국 크리스찬 링크의 과학신학은 칼뱅이 직관했던 창조 세계의 존재론적 긍정성(영광의 극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것이 자연신학적 범신론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바르트의 철저한 인식론적 통제 장치(빛들의 교리, 신앙의 유비)를 씌워 현대 생태·과학신학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융합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링크는 1991년 출간된 저서 『창조(Schöpfung)』에서 바르트의 "창조는 언약의 외적 근거"라는 명제를 현대의 심각한 생태학적 위기와 접목하여, 피조계를 향한 기독교의 윤리적 지평을 급진적으로 확대해 낸다. 만일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언약적 교제를 상연하기 위해 창조주께서 정교하게 마련하신 우주적 무대라면, 오늘날 자본주의적 탐욕과 기술 만능주의로 인해 자행되는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은 단순한 물질적 손실이나 윤리적 실패의 차원을 넘어선다.¹¹⁷ 그것은 창조주께서 성육신을 통해 친히 긍정("Yes")하시고 피 흘려 구속하신 거룩한 은총의 무대를 훼손하는 짓이며, 자연 속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비유적 텍스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가장 심각한 신학적 반역 행위가 된다.¹¹⁸

링크의 이러한 통찰은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 그리고 무분별한 기술 만능주의가 생태계를 잠식해 들어오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현대 신앙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치열하고도 실제적인 도전을 던진다. 진정한 치유와 영성의 회복은 인간 내면의 사사로운 종교적 위안이나 파편화된 심리적 안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거울이자 거룩한 비유로서의 생태계를 온전히 돌보고 보전하는 우주적 청지기직의 실천으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한다. 바르트의 기독교적 우주론은 크리스찬 링크의 비유 해석학과 창조 윤리를 통과하며, 결국 미시적인 유전자와 뇌 신경망부터 거시적인 자연환경과 우주에 이르기까지 온 만물을 거룩한 예배와 찬양의 처소로 회복시키는 가장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생명 신학으로 대수렴을 이루게 된 것이다.

¹¹⁶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52-54.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이 상연되는 거룩한 극장으로 묘사한 장 칼뱅의 통찰로 링크의 비유 해석학이 개혁주의의 장엄한 창조 신학적 유산과 어떻게 동시대적으로 공명하는지를 보여주는 교의학적 토대이다.

¹¹⁷ Christian Link, *Schöpfung: Schöpfungstheologie angesichts der Herausforderungen des 20. Jahrhunderts* (Band 7/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1), 463-471, 480-493. 바르트의 창조와 언약 명제를 생태학적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피조계 파괴가 단순한 도덕적 실패를 넘어 신학적 반역임을 규명하며 현대 창조 윤리의 지평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저작이다.

¹¹⁸ Alister E. McGrath, *The Reenchantment of Nature: The Denial of Religion and the Ecological Crisis* (New York: Doubleday, 2002), 140-145.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자연의 신학을 바탕으로 우주의 미세조정과 생태계의 유기적 복잡성을 창조주의 은총을 계시하는 텍스트로 읽어내며 기독교적 자연 보전의 당위성을 신학적으로 설파한 문헌이다.

C. 정승훈: 동시대성의 신학(Theology of Contemporaneity)과 세계개방의 공공신학

정승훈 교수의 주저 『칼 바르트와 동시대성의 신학: 초기 자펜빌 문서와 『교회 교의학』의 연속성에서 본 사회비판과 타자에의 배려』는 바르트의 유산을 한국 교회와 현대 신학이 직면한 공공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로 융합한다. 그는 이 저서의 제7장 '칼 바르트와 자연신학' 및 제11장 '칼 바르트와 세계개방의 신학'을 통해, 바르트가 폐쇄적인 계시신학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현대 학문과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인식론적 토대를 구축했음을 입증한다.¹¹⁹

나아가 정승훈은 바르트의 신학을 단순한 서구의 교리문답을 넘어 '동시대성(Contemporaneity)'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에게 동시대성이란 복음이 과거의 화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 여기(Hic et nunc)"에서 현대 과학의 담론 및 아시아의 다원적 종교 상황과 직접 부딪히고 대화하는 살아있는 사건임을 뜻한다. 신학은 세상의 진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 질서와 이웃 종교의 지혜 속에도 창조주의 영광을 반사하는 '작은 빛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빛들의 교리) 이들과 상보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⁰

이러한 동시대성의 신학은 교회의 사명을 '예언자적 디아코니아(Prophetic Diakonia)'로 확장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하나님의 인간성' 교리는, 단순히 자연과학과의 이론적 대화를 넘어 21세기의 무너진 생태계와 자본주의적 모순 속에서 고통받는 타자를 긍정하고 섬기는 실천적 원동력이 된다. 포스트휴먼 시대 속에서 진정한 상보적 융합은 이론을 넘어 사회정의와 생명 존엄을 회복하는 공공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그의 동시대성 신학이 던지는 치열한 도전이다.¹²¹

D. 알리스터 맥그래스(A. McGrath)와 현대 과학신학으로의 연결망

칼 바르트가 이룩한 거대한 인식론적 해방은 21세기 최고의 과학신학자 중 한 명인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의 방대한 학문적 프로젝트인 『과학신학(A Scientific Theology)』을 통해 현대적 대수렴의 정점을 찍는다. 맥그래스의 과학신학은 칼 바르트와 토머스 F. 토런스(T. F. Torrance)로 이어지는 지적 계보 위에 굳건히 서 있다. 흔히 바르트의 신학이 자연신학을 완전히 파괴했기에 자연과학과의 대화를 단절시켰다고 오해하지만, 맥그래스의 통찰에 따르면 오히려 바르트가 신학에 침투한 자연신학의 '독소'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학이 우주론 및 생물학과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의 기틀을 확보하게 되었다.¹²²

¹¹⁹ 정승훈, 『칼 바르트와 동시대성의 신학: 초기 자펜빌 문서와 『교회 교의학』의 연속성에서 본 사회비판과 타자에의 배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39-365, 414-438. 정승훈 교수는 이 저서의 제7장 '칼 바르트와 자연신학'과 제11장 '세계개방의 신학'을 통해 바르트의 자연신학 배경이 지니는 동시대적 의미를 분석하며, 그것이 타 학문을 억압하는 폐쇄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과학 및 세속 학문과의 상보적 대화를 가능케 하는 '세계개방적' 토대임을 정밀하게 논증한다.

¹²⁰ *Ibid.*, 420-438. 바르트의 '빛들의 교리(Lichterlehre)'를 아시아의 다원적 상황 및 현대 과학 담론과 접목하여, 신학이 과거의 교리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지금 여기(Hic et nunc)"에서 타 학문 및 이웃 종교의 진리(작은 빛들)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화해야 함을 역설한 핵심 대목이다.

¹²¹ *Ibid.*, 610-635. 바르트의 신학적 유산이 현대 자본주의와 포스트휴먼 시대의 생태학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언자적 디아코니아(Prophetic Diakonia)'라는 공공적이고 실천적인 사명으로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하며, 무너진 생명과 타자의 존엄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을 제시한 결론부이다.

¹²² Alister E. McGrath, *A Scientific Theology*, vol. 1, *Natur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140-145.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칼 바르트의 자연신학 배경이 지니는 긍정적 함의를 재조명하며 기독교론적 기초 위에서 자연과학과 온전히 대화할 수 있는 과학신학의 길을 열어주었음을 평가하는 핵심 본문이다.

19세기의 전통적 자연신학은 인간의 이성이나 당대의 과학적 발견을 척도로 삼아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함으로써, 우주물리학이나 생물학이 발전하여 자연의 미지가 해명될 때마다 신의 자리가 축소되는 '틈새의 하나님(God of the gaps)'이라는 치명적인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피조 세계의 관찰에서 원천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이러한 어설픈 변증학과 이상숭배적 구조를 철폐했다. 이러한 바르트의 철저한 정지 작업 덕분에, 맥그래스는 자연을 독립적인 계시의 원천으로 삼는 전통적 자연신학의 오류로 회귀하지 않고도, 오직 기독교적 렌즈를 통해서만 자연의 질서를 새롭게 읽어내는 진정한 의미의 '자연의 신학(Theology of Nature)'을 재건할 수 있었다.¹²³

맥그래스는 바르트가 확립한 '학문으로서의 신학'이라는 객관적 토대와 토런스의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연과학과 신학이 각자의 고유한 대상에 충실한 상보적 파트너임을 선포한다. 자연과학은 프리드만 방정식(Friedmann equations)이 증명하는 팽창 우주와 빅뱅(Big Bang)의 물리적 인과관계를 훌륭하게 해명해 낸다. 그러나 그 경이로운 현상들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기원과 목적에 대한 질문은 오직 기독교 신학의 삼위일체 창조론을 통해서만 온전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¹²⁴

특히 맥그래스는 그의 저작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A Fine-Tuned Universe)』를 통해, 현대 우주론이 발견한 우주의 '미세조정(Fine-Tuning)' 현상과 생명 잉태를 위한 '인류학적 원리(Anthropic Principle)'를 토런스적 비판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한다. 그는 우주가 생명체를 위해 극도로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이 과학적 사실을 과거의 자연신학처럼 신의 존재를 억지로 '증명'하는 도구로 오용하지 않는다. 대신, 이 경이로운 미세조정 현상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창조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 비로소 가장 포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명된다(make sense)'고 논증한다. 자연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계시가 될 수 없으나, 성육신의 빛 아래서 읽어낼 때 미세조정된 우주는 창조주의 지적이고 언약적인 목적을 발산하는 거대한 '세속의 비유'로 찬란하게 격상되는 것이다.¹²⁵

이러한 상보적 연결망 속에서, 오늘날의 신학은 프랜시스 S. 콜린스(Francis S. Collins)를 위시한 유전학자들이 밝혀낸 디엔에이(DNA) 이중나선의 정교한 구조나, 대뇌 기저부의 윌리스 동맥륜(Circle of Willis)과 천억 개의 시냅스(synapse)가 빚어내는 고도의 신경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억압하거나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 모든 첨단 과학의 발견들은 만유의 주이신 로고스(Logos)의 창조적 합리성이 뿜어내는 눈부신 '작은 빛들'이자, 피조 세계라는 극장에 상연되는 거룩한 '세속의 비유'로 기쁘게 수용된다.¹²⁶

바르트가 극한의 시대적 위기 속에서 수호해 낸 계시의 철저한 기독교적 집중은, 맥그래스에 이르러 미시적인 생명의 유전자부터 거시적인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온 만물을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통합해 내는 거대한

¹²³ Alister E. McGrath, *The Open Secret: A New Vision for Natural Theology*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8), 50-55. 맥그래스가 인간의 이성이나 피조계에서 출발하는 전통적 자연신학의 오류를 피하면서 오직 성육신의 렌즈를 통해서만 피조 세계를 읽어내는 새로운 기독교적 자연의 신학을 구체화한 서술이다.

¹²⁴ Thomas F. Torrance, *Theologic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281-285. 과학은 어떻게를 규명하고 신학은 왜를 선포한다는 역할 분담을 통해 두 학문이 틈새의 하나님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상보적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대수렴을 이룰 수 있는지 논증하는 부분이다.

¹²⁵ Alister E. McGrath, *A Fine-Tuned Universe: The Quest for God in Science and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115-122. 맥그래스가 우주의 미세조정과 인류학적 원리를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를 전통적 자연신학의 신 증명 도구가 아닌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가장 잘 해명(make sense)되는 '자연의 신학'으로 승화시킨 핵심 논저이다.

¹²⁶ Francis S. Collins, *loc.cit.*, 프랜시스 콜린스가 현대 유전학과 신경생물학이 밝혀내는 생명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창조주의 로고스적 질서로 승인하며 신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이 지니는 현대적이고 실천적인 의의를 해명하는 자료이다.

교향곡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영성을 해체하려 드는 포스트휴먼의 파도 속에서, 참된 로고스와 프뉴마(Pneuma)의 역동성으로 인간성의 존엄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현대 교회와 신학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실천적인 동시대적 무기를 쥐여 준 위대한 학문적 대수렴이라 할 수 있다.

E. 소결: '빌려주신 생명(Lehen)'과 '비유로서의 세계'의 실천적 대수렴

알리스터 맥그래스(A. McGrath)를 끝으로 완성된 현대 과학신학의 연결망은 단순한 이론적 대화나 인식론적 정초에만 머물지 않고, 피조계를 향한 거대한 윤리적 실천으로 귀결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크리스찬 링크(C. Link)가 전개한 생태윤리(본장 B절)가 앞서 제IV장 C에서 살펴본 바르트의 생명윤리와 빚어내는 눈부신 교의학적 공명이다.

제IV장 C에서 바르트는 나치의 우생학적 폭력(빈딩과 호헤)에 맞서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생물학적 유용성으로 평가하려는 세속 의학을 맹비판하며, 인간의 생명을 창조주가 철저히 '빌려주신 것(Lehen, Loan)'으로 규정했다. 크리스찬 링크와 현대 과학신학자들은 바르트가 개별 인간의 생명(미시적 차원)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차용된 은총'의 개념을 현대의 생태계와 피조 세계 전체(거시적 차원)로 장대하게 확장시킨다.

바르트가 인간 생명의 궁극적 처분권이 과학자나 의사가 아닌 원소유주이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언하여 생명을 과학기술의 도구화로부터 구출해 냈듯, 링크의 비유 해석학은 이 우주와 자연환경 역시 인간의 탐욕을 위해 맘대로 처분하고 훼손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광을 반사하는 '세속의 비유(Säkulare Gleichnisse)'임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두 사상은 그 대상이 '인간의 생명'이든 '생태계의 질서'이든, 과학기술적 환원주의의 폭력으로부터 피조물의 존엄성을 수호해 낸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신학적 궤적을 그린다.

결국 바르트가 『교회 교의학』 III/4에서 확립한 '빌려주신 생명'의 윤리학과 후기에 만개한 '빛들의 교리(Lichterlehre)'는, 오늘날 토머스 F. 토런스와 맥그래스의 인식론적 정초를 거쳐 크리스찬 링크와 정승훈의 공공적 생태·치유 신학으로 완벽하게 수렴된다. 과거 바르트가 1930년대의 우생학적 폭력에 맞서 생명의 주권을 수호했다면, 오늘날의 과학신학은 이 동일한 교의학적 무기를 들고 기후 위기와 포스트휴먼 기술(트랜스휴머니즘)이 초래하는 생명 경시 풍조에 맞서 피조계 전체의 비유적 존엄성을 회복하는 거룩하고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¹²⁷

VII. 결론

A. "아니오(Nein!)"에서 잉태된 "빛들의 교리"의 역설적 승리

칼 바르트의 신학적 여정은 기독교적 절대성을 사수하기 위한 치열한 방어전에서 출발하여, 온 우주를 기독교론적 은총으로 덮는 거대한 '우주적 교향곡(Cosmic Symphony)'으로 만개한 역설적 승리의 기록이다. 초기 자유주의 신학과 시대의 이상숭배를 향해 내뿜었던 맹렬한 거부는 결코 반지성주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철저한 '방법론적 청결주의(Methodological Hygiene)'를 관철함으로써, 뉴턴(I. Newton)의 기계론적 이신론이나 헤켈(E. Haeckel)의 유물론적 진화주의와 같이 과학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려는 형이상학적이고 '과학주의적인

¹²⁷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르트의 교의학적 체계가 지닌 놀라운 '동시대성(Contemporaneity)'을 재확인하게 된다. 바르트가 『교회 교의학』 III/4(생명윤리)에서 빈딩(K. Binding)과 호헤(A. Hoche)의 우생학적 실용주의를 논파하기 위해 세웠던 '차용된 생명(Lehen)'이라는 튼튼한 방어벽은(본 논문의 IV.C의 2) 참조), 크리스찬 링크의 우주적 창조 윤리(VI.B)와 결합함으로써 오늘날 생태계 파괴와 유전자 조작을 일삼는 21세기의 세속적 기술 만능주의를 타격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천적인 신학적 무기로 갱신된다.

우상'을 철폐하기 위한 예언자적 방어벽이었다. 하인리히 쉘츠와의 대화를 통해 버려낸 신학의 철저한 학문적 엄밀성, 그리고 칼 하임과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제커의 과학적 변증과 상보적 조화를 이루는 바르트의 이 단호한 인식론적 구별은 역설적으로 신학의 부당한 간섭이나 '틈새의 하나님(God of the gaps)'이라는 왜곡된 목적론으로부터 자연과학을 완벽히 해방시켰다. 아울러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맞서 인간을 영혼과 몸의 불가분한 통일체이자 관계적 존재로 정립한 그의 인간학은 현대 우주물리학과 뇌과학, 그리고 의학이 가치중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론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눈부신 결과를 낳았다.

성벽 안에서 기독교적 절대성이 확고해지자, 후기의 바르트는 '빛들의 교리(Lichterlehre)'를 통해 세속 학문과 현대 과학이 발견해 내는 경이로운 질서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작은 빛들'이자 '세속의 비유'로 넉넉히 수용하기에 이른다. 실제로 현대 우주물리학이 밝혀낸 우주의 미세조정(Fine-tuning) 상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정교한 설계를 예표하는 '작은 빛'으로 기능하며, 분자생물학이 해독한 유전체(Genome)의 복잡한 정보 체계는 생명이라는 경이로운 텍스트를 구성하는 '참된 말'로서 기독교적 중심과 조화를 이룬다. 또한, 신경과학이 규명하는 인간 뇌의 1천억 개 시냅스(Synapse) 네트워크가 빚어내는 의식의 창발 현상은 무미건조한 물질적 기제를 넘어, 로고스적인 합리성이 피조물 내부에 투영된 생생한 신학적 비유로 새롭게 번역된다.

B. 포스트휴먼 시대와 우주과학 시대를 향한 신학적 나침반

오늘날 인류는 인공지능(AI)과 유전공학, 양자컴퓨팅이 주도하는 거대한 포스트휴먼(Posthuman)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인간 본성 자체를 기술적으로 개조하고 진화시키려는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의 물결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신성(Deity)으로 추앙하려는 21세기형 '세속적 우상숭배'의 성격을 띤다. 19세기의 '문화 개신교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20세기의 나치즘이 게르만 민족의 혈통과 영토를 신격화했던 낡은 우상숭배였다면, 오늘날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유전자 조작 기술 자체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진화된 우상숭배이다.

이 지점에서 본고의 제IV장 C를 통해 고찰한 바르트의 생명윤리와 우생학 비판은 오늘날의 기술 만능주의를 타격하는 가장 예언자적인 무기로 맹렬히 부활한다. 1920-30년대 나치에 부역했던 의학자 칼 빈딩(K. Binding)과 알프레트 호헤(A. Hoche)는 생물학적, 경제적 효용성을 잣대로 중증 장애인 등을 '살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규정하고 안락사를 정당화했다.¹²⁸ 오늘날 트랜스휴머니즘이 생물학적 한계를 지닌 연약한 육체를 '기술적으로 폐기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할 불완전한 껍데기'로 취급하여 생명을 자의적으로 개조하려는 충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생명의 가치를 과학의 잣대로 재단하려 했던 빈딩과 호헤의 끔찍한 우생학적 오만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바르트가 인간의 생명을 결코 과학자나 의사가 맘대로 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위탁하신 '빌려주신 것(Lehen)'으로 선언하여 나치의 폭력으로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구출해 냈듯,¹²⁹ 이 철저한 기독교론적 생명관은 인간을 기술적 부품으로 전락시키려는 현대의 환원주의를 산산조각 내는 가장 굳건한 방어벽이 된다.

¹²⁸ Karl Binding and Alfred Hoche, *Die Freigabe der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Ihr Maß und ihre Form* (Leipzig: Felix Meiner, 1920), 10-15;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4, *The Doctrine of Creation*, trans. A. T. Mackay et al. (Edinburgh: T&T Clark, 1961), 401-403. 생물학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평가했던 빈딩과 호헤의 우생학적 실용주의를 바르트가 교의학적으로 정면에서 논박한 핵심 전거이다.

¹²⁹ Barth, *Church Dogmatics*, III/4, 324-326, 398-400. 바르트는 생명이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창조주가 철저한 주권 아래 빌려주신 '차용물(Lehen)'임을 명확히 한다. 이는 생명을 유전자 편집이나 기계적 결합을 통해 자의적으로 개조하고 처분하려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기술적 오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윤리적 방어벽이다.

그러나 바르트의 신학적 유산은 단순한 방어적 무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진리 탐구의 최전선에 선 현대 과학자들과의 창조적 융합을 이끌며, 무너진 생명을 돌보는 치유신학의 거대한 존재론적 닻이다. 과학기술이 초래한 세계관의 위기 속에서도, 신학은 환원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우주의 다차원적 신비를 은총 안에서 새롭게 해독해 낼 수 있다. 칼 하임(K. Heim)과 알리스터 맥그래스(A. McGrath)가 현대 신학의 지평을 넓혔듯, 프랜시스 S. 콜린스(F. S. Collins)와 같은 유전학자들이 해독해 내는 생명의 암호 체계나 현대 천체물리학이 발견하는 우주의 미세조정은 결코 맹목적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만유를 붙드시는 로고스(Logos)의 합리성이 물질 세계에 새겨놓은 거룩한 흔적이자 '세속의 비유(Säkulare Gleichnisse)'로 기쁘게 수용된다.¹³⁰

결론적으로, 초기의 치열한 "아니오!(Nein!)"에서 잉태되어 창조론의 '차용된 생명(Lehen)'을 거쳐 '빛들의 교리(Lichterlehre)'로 장대하게 만개한 칼 바르트의 신학적 궤적은 21세기 과학 시대를 위한 가장 역동적인 나침반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리적 게토에 숨어 세상을 향해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바르트가 확립한 기독교론적 인식론으로 무장한 채, 현대 우주물리학과 생명과학의 빛나는 성취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로 투과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유전자 가위가 생명의 신비를 위협하는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 속에서, 과학의 폭력으로부터 연약한 생명을 지켜내고 만물을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회복하는 '예언자적 디아코니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르트가 남긴 기독교론적 우주론을 가장 영광스럽게 계승하는 참된 신학의 사명일 것이다.¹³¹

참고문헌 (Bibliography)

1. 국내 문헌 (Korean Literature)

정승훈, 『칼 바르트와 동시대성의 신학: 초기 자펜빌 문서와 『교회 교의학』의 연속성에서 본 사회비판과 타자애의 배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 국외 문헌 (Western Literature)

Barth, Karl. *Church Dogmatics*, Vol. I, Part 1: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Translated by G. W. Bromiley. Edinburgh: T&T Clark, 1975.

———. *Church Dogmatics*, Vol. II, Part 1: *The Doctrine of God*. Translated by T. H. L. Parker, W. B. Johnston, Harold Knight, and J. L. M. Haire. Edinburgh: T&T Clark, 1957.

———.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1: *The Doctrine of Creation*. Translated by J. W. Edwards, O. Bussey, and Harold Knight. Edinburgh: T&T Clark, 1958.

———.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2: *The Doctrine of Creation*. Translated by G. W. Bromiley, J. W. Edwards, O. Bussey, and Harold Knight. Edinburgh: T&T Clark, 1960.

¹³⁰ Francis S. Collins, *The Language of God: A Scientist Presents Evidence for Belief* (New York: Free Press, 2006), 225-233; Alistair E. McGrath, *A Fine-Tuned Universe: The Quest for God in Science and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115-122. 현대 유전학이 발견한 DNA의 정교한 암호 체계나 우주의 미세조정(Fine-Tuning) 현상은 기계론적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의 로고스적 합리성이 뿜어내는 '작은 빛들'이며, 기독교론적 렌즈를 통해 해독될 때 피조계의 눈부신 비유로 승화됨을 보여주는 동시대적 과학신학의 성취이다.

¹³¹ 정승훈, 『칼 바르트와 동시대성의 신학: 초기 자펜빌 문서와 『교회 교의학』의 연속성에서 본 사회비판과 타자애의 배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610-635. 바르트의 신학적 유산이 교리적 게토에 머물지 않고 현대 자본주의와 과학기술 문명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타자와 생명을 살려내는 '예언자적 디아코니아(Prophetic Diakonia)'라는 공공적 실천으로 승화되어야 함을 역설한 텍스트이다.

---.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3: The Doctrine of Creation*. Translated by G. W. Bromiley and R. J. Ehrlich. Edinburgh: T&T Clark, 1960.

---. *Church Dogmatics, Vol. III, Part 4: The Doctrine of Creation*. Translated by A. T. Mackay, T. H. L. Parker, H. Knight, H. A. Kennedy, and J. Marks. Edinburgh: T&T Clark, 1961.

---. *Church Dogmatics, Vol. IV, Part 3.1: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Translated by G. W. Bromiley. Edinburgh: T&T Clark, 1961.

---. *Fides Quaerens Intellectum: Anselm's Proof of the Existence of God in the Context of His Theological Scheme*. Translated by Ian W. Robertson. London: SCM Press, 1960.

---. *Protestant Theology in the Nineteenth Century: Its Background and History*. Translated by Brian Cozens and John Bowden. London: SCM Press, 1972.

---. *The Epistle to the Romans*. Translated by Edwyn C. Hosky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3.

---. *The Humanity of God*. Translated by John Newton Thomas and Thomas Wieser. Richmond: John Knox Press, 1960.

---. *Theological Existence To-day! (A Plea for Theological Freedom)*. Translated by R. Birch Hoyl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33.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Edited by John Bolt. Translated by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Binding, Karl, and Alfred Hoche. *Die Freigabe der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Ihr Maß und ihre Form*. Leipzig: Felix Meiner, 1920.

Brunner, Emil, and Karl Barth. *Natural Theology: Comprising "Nature and Grace" by Professor Dr. Emil Brunner and the Reply "No!" by Dr. Karl Barth*. Translated by Peter Fraenkel.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2.

Busch, Eberhard. *Karl Barth: His Life from Letters and Autobiographical Texts*. Translated by John Bowde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Cochrane, Arthur C. *The Church's Confession Under Hitle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Collins, Francis S. *The Language of God: A Scientist Presents Evidence for Belief*. New York: Free Press, 2006.

Haeckel, Ernst. *The Riddle of the Universe at the Close of the Nineteenth Century*. Translated by Joseph McCab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00.

Heim, Karl. *Christian Faith and Natural Scienc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3.

---. *The Transformation of the Scientific World View*.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3.

Hunsinger, George. *Disruptive Grace: Studies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0.

Link, Christian. *Die Welt als Gleichnis: Studien zum Problem der natürlichen The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6.

———. *Schöpfung: Schöpfungstheologie in reformatorischer Tradition* (Band 7/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1.

———. *Schöpfung: Schöpfungstheologie angesichts der Herausforderungen des 20. Jahrhunderts*. (Band 7/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1.

McCormack, Bruce L. *Orthodox and Modern: Studies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McGrath, Alister E. *A Fine-Tuned Universe: The Quest for God in Science and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 *A Scientific Theology*, Vol. 1: *Natur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 *A Scientific Theology*, Vol. 2: *Realit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 *A Scientific Theology*, Vol. 3: *Theo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 *The Open Secret: A New Vision for Natural Theology*.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8.

———. *The Reenchantment of Nature: The Denial of Religion and the Ecological Crisis*. New York: Doubleday, 2002.

Pannenberg, Wolfhart. *The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ranslated by Francis McDonag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6.

Polanyi, Michael.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Scholz, Heinrich. "Wie ist eine evangelische Theologie als Wissenschaft möglich?" *Zwischen den Zeiten* 9 (1931): 8-53.

Schweitzer, Albert. *The Philosophy of Civilization*. Translated by C. T. Campion. New York: Macmillan, 1949.

Selinger, Suzanne. *Charlotte von Kirschbaum and Karl Barth: A Study in Biography and the History of Theology*.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8.

Torrance, Thomas F. *Divine and Contingent 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 *Karl Barth, Biblical and Evangelical Theologian*. Edinburgh: T&T Clark, 1990.

———. *Reality and Scientific Theology*.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5.

———. *Space, Time and Incar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Theologic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영문초록 (Abstract in English)

Karl Barth's Theology of Nature and Its Influence: From Christological Concentration to Cosmic Blossoming and Modern Scientific-Theological Adaptation

This study traces the theological trajectory of Karl Barth, elucidating how his rigorous "Christological concentration" ultimately led to the cosmic blossoming of modern scientific theology and a profoundly practical bioethics. Barth's radical rejection of Natural Theology—forged in opposition to 19th-century liberal theology (Kulturprotestantismus) and the idolatry of Nazism—was not an expression of anti-intellectualism toward the natural sciences. Rather, through dialogue with Heinrich Scholz, it was a profound epistemological decision that established theology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Wissenschaft) bound to its unique object, thereby inadvertently guaranteeing the absolute methodological autonomy of the natural sciences by freeing them from artificial teleological interference.

In his doctrine of creation and providence (CD III/1-3), Barth systematically dismantles the biological reductionism of Ernst Haeckel and the philosophical anthropology of Karl Jaspers and Max Scheler, thoroughly rejecting any attempt to define human essence through autonomous reason or natural observation alone. Simultaneously, by deconstructing the romantic mechanism of G. W. Leibniz and the deterministic cosmology of B. Spinoza, Barth transforms the closed, clockwork universe into an open cosmos governed by the active providence of the Living God. Incorporating the multidisciplinary insights of Charlotte von Kirschbaum and the von Weizsäcker family (the physician Viktor and the physicist Carl Friedrich), Barth establishes a groundbreaking Christological and relational anthropology, as well as an open cosmology.

Crucially, in the realm of bioethics (CD III/4), Barth defines human life strictly as a "borrowed loan" (Lehen) entrusted by the Creator's absolute sovereignty. Through this concept, he overcomes the pantheistic vitalism of Albert Schweitzer and delivers a devastating dogmatic blow to the eugenic violence of Karl Binding and Alfred Hoche, who advocated for euthanasia based on the biological utility of "life unworthy of life". By doing so, Barth decisively safeguards the absolute dignity of life against technoscientific manipulation.

Progressing to his later works, *The Humanity of God* and the "Doctrine of Lights" (Lichterlehre) in his doctrine of reconciliation (CD IV/3.1), Barth's thought evolves into a top-down "Theology of Nature". This framework actively embraces secular scientific discoveries and the awe-inspiring cosmic order as "secular parables" (Säkulare Gleichnisse) that reflect the glory of Christ, the absolute Sun.

This paper systematically analyzes how Barth's epistemological revolution and bioethics were inherited and expanded into a holistic scientific theology through Thomas F. Torrance's concept of contingent rationality, Christian Link's ecological hermeneutics of parables, and Seung-Hoon Chung's theology of contemporaneity. Ultimately, the thesis demonstrates that Barth's Christological cosmology and the ethics of "borrowed life" serve as the most dynamic and practical ontological compass in the posthuman era, curbing the transhumanist impulse to technologically

alter human nature and restoring the dignity of life and ecology amidst the dominance of technoscience.

- **Keywords:** Karl Barth, Theology of Nature, Doctrine of Lights, Methodological Hygiene, Borrowed Life (Lehen), Critique of Eugenics, Doctrine of Providence, Thomas F. Torrance, Posthumanism, Scientific Theology.